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제1008호

삼성전자·현대차 순익이 전체 기업의 37% 차지하는데…

스마트폰 이어 자동차 '쇼크' 오나

한국경제 성장엔진 '제조업' 경쟁력 약화 불안감 증폭

삼성전자 3Q 영업익 4조 후퇴…현대차도 2조 붕괴 위기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특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까지,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효자 품목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경제의 도미노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관련기사 3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조7455억원으로 전체 영리법인 68조9710억원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내 대표 3개 기업이 국내 기업 총 순이익의 37%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쇼크에 이어 자동차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은 한계에 부딛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충격적인 여러 지표를 받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상반기 3.7%, 하반기 3.3%)로 낮췄다. 내년도 4.0%에서 3.9%(상반기 3.7%, 하반기 4.1%)로 하향조정했다.

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돌아간 기준금리(2.0%)는 초저금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는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이 필요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방증한다.

하루 만인 16일, 한은은 심각성을 더하는 또 하나의 경제지표를 내놨다. 지난해 49만2288개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1%로, 한은이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았다는 것.

문제는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IT), 자동차 등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0.5%로 1961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매출액의 0%대 증가는 1998년 외환위기(0.7%) 당시를 제외하고는 볼 수 없던 일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0.3%로 전년(5.0%)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특히 수출 대기업 위주로 매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수출물량은 늘었지만 원화강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스마트폰 사업이 성장한계에 부딪히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업체의 빠른 추격이 위협적이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영업이익(잠정)이 3년 전인 4조원대로 후퇴했고,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로 하락했다.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의 2조원대 붕괴가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2~4분기 연속 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다 올 1분기 1조9384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올 2분기엔 영업이익 2조원대를 회복했지만 1분기 만에 다시 이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는 수입차의 파상공세, 환율 쇼크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외국환평형기금〉

'외환국방비' 함부로 쓴다

기업 투자 어려운데 "엔저에 日기계 사라" 외화대출 확대

외환관리용 자금 무작정 풀어

급격한 환율변동 대응력 약화

정부가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자본유출 가능성과 엔저 장기화에 대비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엔화 약세를 역발상으로 이용해 수입 자본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지만 경기부진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기업에 저리로 외화를 빌려주는 운용방식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엔저 대응을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연내 집행 목표치를 3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외평기금 외화대출 한도를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소진 때까지 지원키로 했다. 엔화 약세를 역으로 이용해 기업들이 일본의 기계나 장치, 공장 설비 등 고정자본을 수입해 시설이나 설비 투자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현실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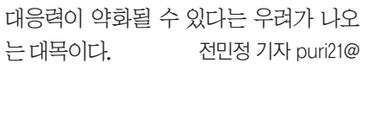
외평기금을 통해 수입결제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자금을 빌려주는 외평기금 외화대출제도 확대 역시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로 외환시장이 불안한 현재로선 적절치 않은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출렁이거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달러 등을 사들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사실상의 '외환국방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평기금은 작년 5조9000억원의 당기순손실, 40억300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는 등 현재 5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은 구조적 역마진으로 운용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이처럼 환율안정 실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위험 관리용' 자금을 실효성이 부족한 외환대출에 동원하다 보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외평기금 채권발행 현황

단위: 조원



연도별 당기 순이익 누적손익 추이

단위: 조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당기순손익	-4.7	-5.1	-3.3	-12.3	-5.9
누적손익	-13.8	-18.9	-22.2	-34.4	-40.3

'아이패드 에어2' 굴욕

전문가들 "매력 없다"

애플주가 1.3% 하락

애플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차세대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 2'와 '아이패드 미니 3'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애플의 태블릿 신모델이 다양한 기능을 갖췄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 매력은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9면

루이스 라미레즈 딜뉴스닷컴 선임 에디터는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신형 아이패드의) 새로운 기능들은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큰 폭의 가격 인하가 없다면 새로운 기능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앞서 대화면 스마트폰인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한 상황에서, 아이패드 시리즈의 매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마크 스푸나우어 랩톱매거진 에디터는 "애플을 포함한 태블릿 업체들은 이제 대형 스마트폰인 패블릿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8~10인치 화면의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것 중 5.5인치 아이폰6플러스로 못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본사 타운홀 강당에서 언론 행사를 열고, 6.1mm 두께의 '아이패드 에어 2'를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이라고 소개했다. 애플은 또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27인치 화면의 PC '아이맥'과 새로운 '맥 미니'를 선보였다.

나스닥에서 이날 애플의 주가는 1.31% 하락한 96.26달러에 마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미래부·방통위, 이통·제조사 사장단 긴급소집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기다리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기업 이익 위해 단통법 이용땐 특단조치"

최양희 장관, 이통·제조사 긴급 간담회… '시장 안정화' 강조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말기 제조사·이동통신사와 가진 단통법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기업들에 촉구하면서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단통법은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으로 지원금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통사, 제조사들이 단통법의 취지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불거지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이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나눠지다 보니 지원 체감도는 낮아졌고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되는 등 상인들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증시에 '에볼라 주의보' 발령

백신 개발 등 테마주 상승에

관련없는 주식 덩달아 급등

"그 약 1년 전 단종됐는데요…", "에볼라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도 '에볼라주의보'가 발령됐다. 관련주들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관련 없는 주식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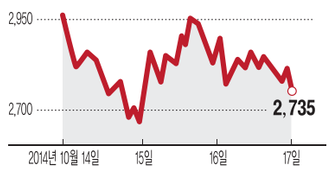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관계사인 이노비오와 공동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 백신을 개발 중인 진원생명과학은 이달 들어 주가가 127%나 올랐다. 에볼라 진단 시약을 만드는 바이오니아도 36%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에볼라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종목들도 후속 테마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프로폴리스' 함양 제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이다. 프로폴리스 제품이 에볼라 바이러스 항생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판매가 늘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들 제품을 파는 국제약품, 명문제약 등은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랐다 하락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약품 주가 추이

단위: 원



최근 주식카페 등에는 유유제약의 자회사 유유헬스케어도 프로폴리스 함양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에볼라 수혜주로 이름이 올랐다. 유유헬스케어 관계자는 그러나 "프로폴리스 제품 생산은 1년전쯤 단종했다"며 "주문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미팜은 최근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에볼라 관련주 중 아직 손때가 타지 않은 종목'이라는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문구와 함께 에볼라 수혜주로 둔갑했다.

송영록 기자 s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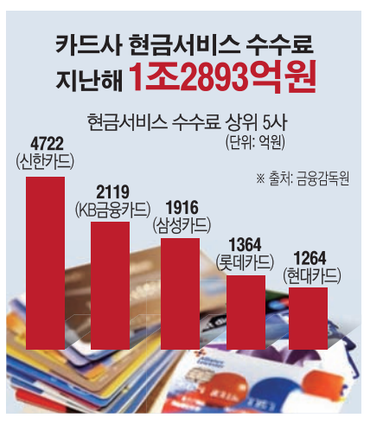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카드사 현금서비스 고금리 '도마 위'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들이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이었다.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589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우람 기자 hura@





국민 3명 중 1명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 가입자가 170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1708만4454명으로, 조사 이래 최초로 17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분기 7만8138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어 서울(5만5255명↑), 부산(4만6928명↑), 대구(3만6067명↑), 경남(3만4510명↑)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Star 금요섹션 15~21면

커버스토리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홍기택 회장 ▶8


정용동 대표 ▶10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몰랐거나…우겼거나…

이석우의 '갈팡질팡 16일'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시작과 끝도 카톡' 검찰 국감

'사이버 검열'과 '감청 영장 불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말바꾸기'가 또 한 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은 지난 1일 다음카카오 합병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 국내 IT업계에 새로운 공룡을 탄생시킨 이날 행사장에서 이 대표는 기자들의 감청 관련 질문에 "(카카오톡에는) 감청설비가 없다"며 감청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음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이 시작됐다.



1일 "카톡 메시지 검열없다"… 13일 "영장 거부" 초강수
어제 법사위 증인 "법 지키되 감청은 불응" 모순적 발언
이용자 160만명 줄며 주가 뚝… 이탈자 막기 강경책 분석

카카오톡 감청이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초법적' 발상인 '감청 영장거부'라는 '신의 한 수'를 둔다. 물론 이 대표가 감청 영장 거부를 선언한 데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는 선상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감청 영장 거부는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점을 높이 사서 내린 결정이지만, 여론은 다음카카오가 '사이버 검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방식을 두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더욱 큰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석우 대표는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13일 기자회견이) 탈법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는 불만을 표한다. 이 대표가 합병 기자회견에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부메랑이 돼 비판으로 돌아오자 내놓은 자신의 발언이 호도됐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락가락하던 이 대표는 결국 16일 오후 서울 고검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오르게 된다. 그는 여기에서 또다시 말을 바꾼다. 이 대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법은 앞으로도 지키겠다. 과거의 방식을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법률에 명시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은 지키겠다는 모순적 발상이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다음카카오를 또 다른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 대표가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감청 영장 집행의 비강제성을 노린 법의 허점을 강조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용자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감정적 대응이 앞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논란의 불씨를 계속 키워 가면서 검찰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이석우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중요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영장을 받겠다. 명예훼손은 감청영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음카카오는 물론, 검찰 역시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일차적 이유는 모바일이 사회생활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전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논란으로 기업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고, 정치적 이슈로 번졌다는 점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음카카오가 정부당국과 정면 충돌하면서 16일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카카오톡 이탈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이탈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즉각적 답변은 피했지만 기업분석 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사이버 논란이 촉발된 9월 16일 2685만명에서 28일 2524만명으로 160만명가량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청 영장 거부라는 강경책이 나온 데는 이처럼 이용자 감소와 이에 따른 다음카카오 주가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헌 기자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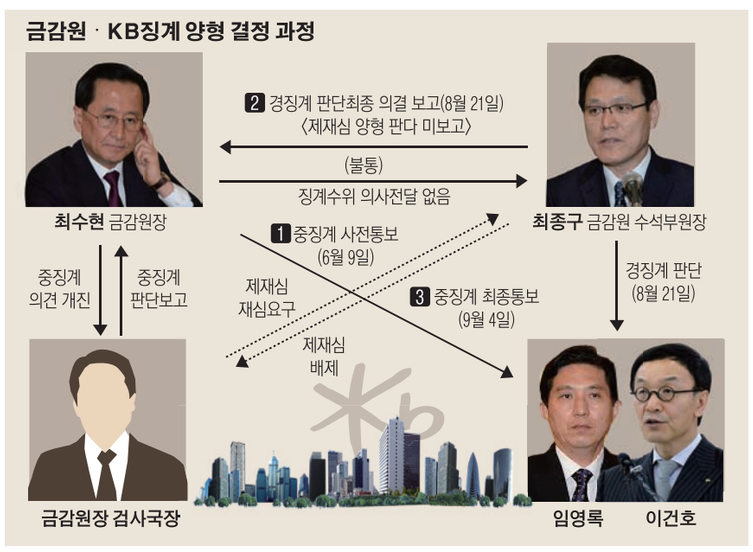
KB '중징계~경징계~중징계' 혼선

금감원 崔·崔 '불통' 있었다

'KB 청문회' 된 금감원 국감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 간 불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의 답변이 엇갈리면서 의원들로부터 "콩가루 집안"이라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KB금융 사태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고시 25회로 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최 원장과 최 부원장은 KB금융 징계 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행시 동기' 최수현 금감원장·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엇박자
최 부원장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때 원장측 의견 완전배제
최 원장은 징계 상향때 의견조율 안해… 여야 "콩가루" 질타

의원들은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높아진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의 답변은 중간중간 미묘하게 엇갈렸다. 최 원장은 제재심 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됐고 최 부원장도 원장의 중징계 결정단계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최 부원장은 지난 6월 금감원 조사라인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 통보를 내릴 당시 "내용을 전혀 몰랐다. 사전에 나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최 부원장은 9월 12일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중징계로 상향하기 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최 원장-검사라인으로 이어지는 제재 결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최 원장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으로부터 "조직 내부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재심 결과로 부원장 의견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반대로 최 원장은 최 부원장이 주재하는 제재심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제재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최 부원장도 "원장으로부터 어떤 것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뒤늦게 "(징계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제재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다했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 이어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KB금융 사태로 혼란을 빚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

임 전 회장은 "모두 내 부덕의 소치다. 전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 전 행장도 주전산기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부덕하기 때문이다. 미리 수습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 전 행장은 이어 "제가 회장님하고 어떤 경영진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주요 경영 사안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법규상 내게 주어진 의무다. 이 점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와 효성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감독 소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2817억원이나 미지급될 때까지 금감원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며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을 질타했다.

이에 최 원장은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문제가 생겼고 특별검사를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검사를 통해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또 이날 국감에서 "효성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당시 효성 계열사인 카프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해 효성 분식회계 과정에 감독 소홀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효성은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원에서 적게는 215억원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통해 총 1조3000억원의 회계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kimmj@

동서식품 시리얼 자발적 회수 안내

동서식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저희 동서식품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 후레이크 이상 4개 품목의 특정 유통기한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를 요청 받아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고객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아래의 대상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여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유통기한 2014년 11월 10일)
- 오레오 오즈 (유통기한 2014년 11월 6일)
-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유통기한 2015년 4월 2일 / 2015년 4월 3일)
- 아몬드 후레이크 (유통기한 2015년 5월 29일)

해당 유통기한의 제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가까운 동서식품 영업지점이나 구입한 매장에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동서식품 고객 상담실 (080-023-9114)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서식품은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이전보다 더 소비자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2014년 10월 17일
동서식품 임직원 일동

수입차 '안방'서 고속질주…액셀 못밟는 현대·기아차

수입차 올 국내판매 25.6% 늘어

토요타 '캠리' 20일부터 사전예약

폭스바겐 '파사트' 내년 출시 예정

현대·기아 점유율 70% 밑돌아

내수시장 경쟁력 제고 '안간힘'

해외서도 글로벌브랜드에 협공



잠식당하는 국내 자동차시장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대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겁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해야겠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입차의 국내 판매 추이를 이 같이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수입차의 한국 시장점유율 한계를 10% 중반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에는 20%대를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전면 수정했다. 국내 산업 관련 연구소들도 성장을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성장률이 가파르다는 얘기다.

◇국내 판매성장률 25%… 수입차 진격 어디까지 = 수입차는 올해 1~9월 국내에서 14만5844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25.6% 판매량이 늘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입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은 수입차의 공세가 더욱 거셀 전망이다. 한국토요타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신형 '캠리'를 이달 20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신형 캠리는 최저 가격이 2000만원 후반대에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현대차의 'LF쏘나타'와 '그랜저'와 전면적인 가격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한국토요타는 최근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에 876㎡(약 265평) 규모의 대규모 브랜드 체험관을 개장했다. 예전과 달라진 한국 시장 위상을 인지, 공략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는 얘기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차 업체들이 국내 수입차 시장을 과점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의 달라진 행보는 향후 한국 내수 시장을 빠르게 바꿀 수도 있다. 토요타 외에도 한국 시장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수입차는 많다. 폭스바겐의 대표 중형세단 8세대 '파사트'는 최근 유럽에 출시된 데 이어 내년에는 한국 시장에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세대 파사트는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베스트셀링카 등극은 충분하다.

◇안방서 후진하는 현대기아차 = 수입차의 폭발적인 성장에 밀려 현대기아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연간 국내 시장점유율이 2009년 76.8%였으나 2012년 74.6%, 2013년 71.4%로 낮아졌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점유율은 69.6%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70%선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세계 영토 확장을 위해 진군했던 현대기아차가 안방에서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브랜드의 거센 반격에 직면하고 있다. 토요타, 혼다 등의 일본 업체들은 최근 엔저(엔화 약세)를 활용해 해외에서 판매 가격을 낮췄다. 미국에 먼저 출시된 신형 캠리는 2만2970~3만1370달러(약 2396만~3272만원)에 출시돼 현대차의 LF쏘나타의 판매를 위협하고 있다. LF쏘나타의 미국 판매 가격은 2만1150~2만8575달러(약 2206만~2980만원)로 캠리보다는 저렴하다. 하지만 주력 판매 모델의 경우 캠리와 가격 변별성이 없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에서의 가격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차 출시로 시장 수성 나선다 = 물론 국내 업체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수입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현대차는 올해 국내에서 신형 제네시스와 LF쏘나타를 출시한데 이어 내년에는 신형 '아반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70%대를 회복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대량 생산하는 볼륨 모델 이외에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올해 국내에서 9월까지 9768대가 판매돼 1만대 판매 돌파를 앞두고 있을 만큼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중국,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공장을 세우는 글로벌 전략은 높이 평가된다"며 "이를 강화하면 국내 시장에서의 낮아지는 생산성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베스트셀링카 '티구안'·'캐시카이' 경계령

현대기아 "신차로 위기돌파"

투싼·스포티지R 출시시기 '저울질'

아반떼·K5 등 내년 상반기에 내놔

현대기아차가 안방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신차 전략을 전면적으로 펼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투싼'과 '스포티지R'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출시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고, 시점도 내년 상·하반기부터 내후년 초까지 세부적으로 나눠 내수와 해외 시장 모두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로 예정됐던 신형 '티구안'의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기아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티구안은 2007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약 70만대 판매고를 올린 글로벌 베스트 셀링카다. 국내에서 올해 1~9월 6255대를 판매하면서 수입차 모델별 판매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티구안과 현대기아차의 신차 출시가 맞물릴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신형 투싼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출시한 후 하반기에 북미와 유럽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신형 스포티지R는 내년 하반기 국내 시장에 먼저 출시하고, 내후년 초 유럽과 북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디젤 모델의 격전지인 유럽시장에서 SUV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캐시카이'도 골칫덩이다. 현대기아차는 캐시카이가 유럽에서 출시되자마자 항공편을 이용해 2대를 직접 공수해 분석 작업을 완료했다.

현대기아차 연구원은 "캐시카이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유럽 판매 모델과 연비, 내외장재 측면에서 더 낮은 등급의 차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보다 한수 아래"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최근 국내에서 캐시카이는 3주 만에 300대 예약 판매고를 거두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신형 투싼과 스포티지R를 유럽과 북미, 국내 각각 현지화 전략에 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유럽에는 1.7ℓ 디젤 모델을 중심으로, 북미에선 1.6ℓ 가솔린 터보엔진을 장착해 출시할 계획이다. 또 연말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중간 트림인 '아슬란'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형 '아반떼'와 'K5'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들 차종은 풀 체인지를 통해 플랫폼과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 소형차부터 중형차, 대형차 시장에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52주 신저가 경신…현대車 '후진' 언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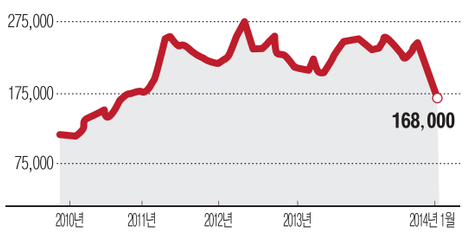
3년2개월 만에 주가 17만원선 밑돌아

글로벌 판매 증가 속 4분기 호실적 기대

현대차 주가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엎고 있다. 한전 부지매입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최근 하락은 단순히 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현대차의 고전이 예상된다는 점이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17일 현대차는 전일 대비 1% 이상 하락하고 있다. 개장 초반 16만5000원을 기록하며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현대차는 전날에도 4% 하락한 16만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52주 신저가는 물론 201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대차 주가가 17만원을 밑돌았다. 약세는 고스란히 주력 계열사로 이어졌다. 현대모비스도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기아차 홀로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가 하락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3분기 현대차 매출은 환율 영향과 글로벌 평균 판매단가(ASP) 하락으로 약 4%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공장 가동률 하락과 제값받기 전략이 후퇴하면서 영업이익률도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관, 정승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LF 쏘나타 판매 부진,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 자동차 시장 침체,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외국인 매도 지속 등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으로 4분기 실적이 가장 좋다. 이어 2분기, 3분기, 1분기 순으로 차가 잘 팔린다. 이에 3분기 저점을 통과한 후 4분기에 호실적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 역시 지난 9월 기준 누적대수 363만대를 기록, 전년 대비 3.6% 늘어났다. 그만큼 수익성도 견조하다. 원화 강세와 파업 등이 맞물렸지만 이를 적절히 극복해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회의장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정상급회담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밀라노/뉴시스

中 "남북관계 개선 지지"

朴대통령·리커창 양자회담
FTA 연내 타결도 재확인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밀라노 국제회의장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통해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과 북한 비핵화,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등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소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리커창 총리는 "남북접촉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화답해 향후 남북대화에 대한 중국 측의 공개적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박 대통령은 17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국제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헌신적인 노력을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기도를 다시 부탁할 예정이다.

이어 이탈리아 대통령궁에서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리 관저에서는 마테오 렌치 총리를 만나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16일 ASEM 전체회의에서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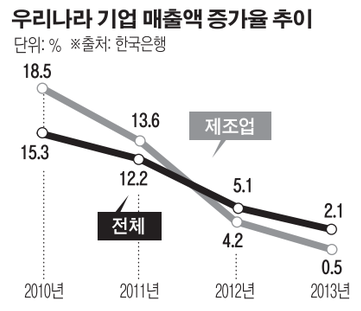
윤필호 기자 beetlebum@

기업 경쟁력 '뚝' 경제성장률 빨간불

작년 제조업 매출액 증가
한은 집계 2002년 후 최저
성장 견인하던 電車 저조

한국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의 매출 증가율이 작년 0%대로 진입, 사실상 성장이 멈춰버렸다. 특히 외환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들의 성적까지 좋지 않아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49만2288개 기업을 전수조사해 지난 16일 발표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1%로 관련 통계치를 집계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았다. 2010년까지만 해도 연간 15.3%였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2.2%, 2012년 5.1%로 3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중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0.5%로 1961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0.7%보다도 낮았다.

더욱 문제는 제조업의 부진이 추세적이라는 점이다. 2011년만 해도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13.6% 늘었으나 2012년에는 증가율이 4.2%로 급감하더니 작년에는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이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다. 삼성전자 매출은 올 3분기 47조원을 기록해 2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처음으로 5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자동차, 정유, 조선업 등의 간판 대기업들도 지속하고 있는 엔저 현상 등으로 급격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0.3%로 전분기(5.0%)보다 많이 축소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올해 정부 목표치보다 1조4000억원 부족할 가능성도 커졌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부족으로 한은은 '경제전망보고서 10월호'에서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망에서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연간 316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세수부족으로 312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경환 경제팀이 확장적 경제·재정정책을 펼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연 2.0%로 사상 최저치로 내리면서 미약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은 탄력받기 어렵게 된다.

이진영 기자 mint@

박영선 "거짓말 장관"에 최경환 '폭발'

朴 "재정정책 수시로 말 바꿔 외촉법 통과 후 신규채용은 99명밖에… 허위사실 유포"
崔 "근거없는 과도한 추측 불과 정책 틀리면 거짓말인가" 반박



박영선 의원



최경환 부총리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저격수'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시작부터 "초이노믹스라는 말의 실체가 무엇이냐"면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도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이 붙여준 게 아니라 자가발전한 이름이란 의심도 간다"고 공세를 폈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은 있지만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며 "그래서 '왕 장관'이란 별명이 붙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초이노믹스가 고꾸라지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만 선택하는 '초이스(choice)노믹스'"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상승했던 주가가 1900대 초반으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금산분리법과 담뱃세 인상, 재정확장 정책 등과 관련, "말 바꾸기한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언급, "외촉법이 통과되고 나서 신규채용된 인원이 9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일방적 공세에 침묵하던 최 부총리는 박 의원의 '거짓말' 발언에 발끈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 부총리는 "너무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했다"면서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거짓말한 적 없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 모든 경제정책에서 다르면 다 거짓말인가"라고 받아쳤다.

이어 "주가가 떨어진 게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고 하는데 주식 시장은 근본적으로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른 것 아니냐"라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업종들이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달러 강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이익실현)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공무원연금 당정협의 참석한 안행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美 연준 양적완화 종료 영향은…



아눕 싱 전 국제통화기금(IMF)아태국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다가올 미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崔 "기준금리 2% 마지노선 아니다"

경제상황따라 금리 더 인하
'제로 금리'는 비상시 가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경기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금리를 현재수준보다 더 내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저치인 현재 기준금리 2.0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부양책을 위해 필요한 적정금리 수준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한은의 독자적 판단"이라면서도 "안 좋으면 내릴 수 있고 좋아지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를 아무리 내리더라도 '제로금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최 부총리의 인식이다. 홍 의원이 시장의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제로금리도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그렇지는 않다"며 "제로금리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비상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한국경제가 나쁘다며 선전하고 있다.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지난 15일 이뤄진 한국은행의 (2.25%→2.00%) 조치를 비판했다. 현재의 금리수준을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까지 내린 것은 정상적 결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리는 동시대 다른 나라 금리와 물가수준을 종합 감안해서 봐야 한다"며 "그때 2%와 지금 2%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가스공사 3수 만에 '세계가스총회' 유치

1200억 경제효과 기대

한국가스공사가 세계가스총회(WGC: World Gas Conference) 2021 유치에 성공하면서 의장국의 지위는 물론 12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3년마다 개최되는 WGC는 전 세계 90여개국, 6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스산업계의 최대 행사다.

특히 WGC 유치로 장석효 사장은 오는 2018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국제가스연맹(IGU:International Gas Union) 의장을 맡아 세계 에너지시장에서의 발언권 확대와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GU 총회에서 84개 위원국이 참여한 WGC 2021 개최국 투표를 통해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과의 경합 끝에 최종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WGC 2021의 유치에 따라 국내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 효과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양적 기여가 기대된다. 약 1200억원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500명의 취업·고용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에너지 자원 외교 역량과 협력 관계 강화, 안정적 가스수급, 국내 가스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기회 확대, 그리고 사회 공헌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비경제적 면에서도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희준 기자 h9913@

'개헌' 발언 하루만에 꼬리내린 무대

김무성 대표 "죄송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자신의 개헌 발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3박 4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언과 관련해 "불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개헌 논의 불가 입장인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큰 파장을 불렀다.

이에 김 대표는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보도 된 데 대해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상하이)간담회가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같은 테이블 기자와 환담. 이때 개헌 질문이 있어서 답변했다. 이때 답변을 안 했어야 했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개헌론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될 것을 걱정해서 말을 했다. 저의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어야 하는데 크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한수원 '원전 마피아'·사적연금 활성화 쟁점

국감 2주차 마지막날
고리1호기·월성1호기 불량부품 노후 원전 안전관리 대책 촉구
LTV·DTI 완화,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 증가 부작용 추궁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안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논란이 이틀째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초이노믹스의 정당성을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을 '서민 증세'로 몰아붙이며 '부자감세 철회'와 '세수부족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을 추궁, 조세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이노믹스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나왔다.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국민연금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불량 위조부품 납품의 배경 중 하나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원전 마피아' 개선책 주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제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주장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동서식품 시리얼  대형마트서 퇴출

이마트, 전 제품 판매 중단
롯데·홈플러스 문제제품만
본사·연구소 추가 압수수색
식약처, 조사 결과따라 제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동서식품의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일제히 판매 중단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종 외에도 동서식품의 모든 시리얼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 조치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17일부터 동서식품 25개 전 시리얼 제품의 판매를 중단 조치했다"며 "앞으로 식약처 등 동서식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오레오 오즈' 등 4종류 시리얼을 판매 중단했다. 현재 롯데마트는 판매 중단 품목의 확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대장균군이 검출된 4종 시리얼 제품과 함께 전 시리얼 제품 품목에 대해 교환·환불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동서식품 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서식품 시리얼 전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완제품을 생산·유통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이들 4종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으며,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도 같은 날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6일 동서식품 본사와 연구소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정상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검찰은 동서식품 임직원들을 조사한 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동서식품은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균 시리얼'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리얼 제품 관련 언론 보도로 그간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14개 제품에 대해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제10회 서울 국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와 ㈜제일좋은전람과 공동 주관으로 16일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려 불황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로 붐비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 및 개별 창업에 관한 관련 산업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80개 업체 150부스 규모로 18일까지 열린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무원연금 수급자 절반 건보료 한 푼도 안냈다"

20만명 자녀 직장 피부양자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절반가량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소득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직장 피부양자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전체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에 달했다.

직역연금별 피부양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16만2637명, 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등이었다. 이들 공무원연금 수령 피부양자가 받는 연간 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나눠보면 3000만~4000만원 4만8464명(29.9%), 2000만~3000만원 7만420명(43.4%), 1000만~2000만원 4만2206명(26.0%) 등이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게 하려고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금소득과 근로 및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김부미 기자 boomi@

상장사 임직원 미공개정보로 1400억 꿀꺽

증선위 사실 적발하고도 방관

최근 5년여간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고도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단기 시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1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에서 올해 6월까지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이 225억원으로 통보액 1641억원의 1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환수액은 615억원이며, 확인조차 되지 않은 금액도 801억원에 달했다.

미환수금액은 해당 회사가 반환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대다수이나, 확인불가 금액은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된 경우가 많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매수하고 6개월 내에 팔거나 매도 후 6개월 내 매수하면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제도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적발하는 대로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 6개월 동안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이 통보된 353건의 사업보고서 상 공시된 건은 205건에 그쳤다. 미기재 41건, 기재 미흡 3건, 미제출 104건 등 148건(42%)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의 목적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방지하고 일반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게임업계로 번진 '사이버검열' 논란

"엔씨·넷마블 수사전용 홈피제작"

카카오톡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 논란이 게임업계 대표주자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춘 의원은 1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엔씨소프트의 수사 전용 사이트 페이지 첫화면은 CRIN이라고 쓰여 있으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진다. 또 하단 사이트 설명란에는 "기재된 정보는 수사기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적혀있다. 특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며 "CRIN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열람은 불가능하고, 관련 법률절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엔씨소프트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문의 접수와 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또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넷마블 역시 "접속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 119@

건보공단, 의료정보 수사기간에 수시로 넘겼다

4년새 검찰·경찰에 435만 제공
"협의 미확정상태서 제공 문제"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검경은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정부, 담배 제조사 손실 보전…농가 지원은 나몰라라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제조·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했지만 담배재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혀 없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담배 제조회사와 소매점의 손해 보전을 위해 한 갑당 232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손해보전액 이외에 항목별로 담뱃세(366원)·지방교육세(122원)를 488원, 건강기금(487원)·폐기물부담금(17원)을 504원, 개별소비세(594원)·부가세 등 국세를 776원 인상해 한 갑당 총 1768원의 세금·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한 피해보전 대책이 인상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 보전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경원여객, 경리·회계업무 직원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경원여객자동차(주)에서 경리사무원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경원여객자동차(주) 산하 스카이비(주)의 경리 및 회계업무이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문서작성과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업체 측은 40~60세 여성을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근무예정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격주 토요일 오전근무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492-2260)로 문의 가능하다.

유혜은 기자 euna@

모집요강

모집직종	경리사무원
직무내용	재무 및 회계사무
접수마감일	2014년 10월 29일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3년 이상
학력	초대졸 이상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장년층

"韓 호텔서 화상" 위자료 청구
대만 코미디언 2심서도 패소

국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반한운동까지 벌였던 대만의 인기연예인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국내의 한 호텔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을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화상을 입었다. 쿠오씨는 호텔에 비치된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였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주전자 아랫부분에는 물을 가열하는 가열판만 있었을 뿐, 밑판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쿠오씨는 같은해 7월 호텔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패소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고구마가 내 팔보다 길어요"



서초구는 내곡동 주민과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들이 16일 서울 내곡동 사랑의 밭에서 열린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에서 고구마를 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수확된 고구마는 저소득가정 200세대와 관내 노인정 9개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은 '탄소 高비만국'…온난화 방치 땐 경제손실 2800조

〈2100년…GDP 2.8% 수준 해당〉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투데이·환경재단 350 캠페인

후원 :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위

<시리즈 순서>

① 텀블러 이용실태 조사
② 대한민국은 '종이컵 천국'
3 일회용컵을 안써야 하는 이유
④ '친환경 경영'이 뜬다
⑤ 일회용컵 없이 생활하기
⑥ 종이컵의 죽음과 환생
⑦ 특명 "탄소배출량을 줄여라"
⑧ 일회용컵 사용 절감 제언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이산화탄소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중 약 80%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우리나라에도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거나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더 사야 한다는 얘기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은 삶의 화두이자 산업 경쟁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온난화 방치 땐 2100년엔 최대 2800조원 경제적 손실 =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내놓은 기후변화 5차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난 112년간(1901~2012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0.89℃ 올랐다. 또 이대로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21세기 말(2100년)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3.7℃,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2℃만 상승하면 세계경제 손실액은 소득의 0.2~2.0%(1400억달러~1조400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기온 상승으로 건조 아열대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가 많이 감소해 2030년부터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고, 육상 및 담수종의 멸종위험이 증가하며 연안홍수 탓에 토지가 유실되는 등 전 부문에 걸쳐 위험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사회기반시설 파괴와 폭염 관련 사망, 가뭄 관련 물·식량 부족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공급과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 원인인 만큼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석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하고, CCS(탄소포집·저장) 등의 감축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IPCC는 권고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내놓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배출되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는 평균기온이 5.7℃ 상승하고 강수량은 17.5% 늘어나며 해수면은 1m 이상 올라가 최대 2800조원의 누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300조원을 들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면 누적 피해비용을 800조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로 2100년 한반도 5.7℃ 상승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CO_2 배출 줄이기' 산업경쟁력이자 전국민 과제
기후대응 300조 투입 땐 800조 피해비용 감축

조림수 펄프 종이컵 재활용 CO_2절감 효과 커
과정 복잡해 재활용 14%…나머지 매립·소각

개인컵 씻는데 물 1.7ℓ…CO_2 배출량 1g 불과
일상생활에서 텀블러·머그잔 사용 실천을

◇종이컵 사용만 줄여도 '탄소 다이어트' 실천 =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배출량 증가율이 103%(1990년 대비 200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어느새 '탄소 고(高)비만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줄이기는 이제 전 국민의 과제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발전 분야와 생활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산업·발전 분야는 2011년 목표관리제를 도입했으며, 오는 2015년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의 대표적인 게 종이컵 사용 자제다. 종이컵도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다. 나무 펄프를 베서 종이를 만들고, 다시 컵으로 가공하는 공정을 거친 뒤 제품을 수송하고 소각하는 전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종이컵 1개당 11g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종이컵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개당 5.46g, 수송 및 가공에 0.78g, 소각(재활용 14%)에 4.49g 등을 합한 값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회용 종이컵은 연간 약 120억~150억개가 사용되고 있다. 연간 종이컵 120억개를 생산하려면 펄프 7만톤, 벙커C유 5500톤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13만2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는 200톤 유조차 200대 분량의 원유 연소량과 맞먹는다.

1회용 종이컵 1톤(728개)을 만드는 데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1회용컵을 만드는 데 20년생 나무 약 220만 그루가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종이컵은 조림수로 만든 펄프로 만들어 사용 후 회수하면 다시 재생화장지 원료로 쓸 수 있다. 회수된 종이컵을 재활용하면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크다.

폐지 1톤을 재활용하면 천연펄프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0.7~1.0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이컵을 재활용하려면 폴리에틸렌(PE) 코팅을 벗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종이컵의 14%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소각된다.

반면 녹색연합에 따르면 개인컵을 사용하게 되면 컵을 한번 씻는데 10초가량이라고 가정할 때 1.7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이때 1.0g의 이산화탄소만 배출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텀블러나 머그잔으로 종이컵을 대체하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탄소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민정 기자 puri21@

"인류생존 위해 CO_2농도 350ppm 이하로"

현재 대기중 농도 390ppm…온난화·이상기후 날로 심각
환경재단 주축 범국민 '350캠페인' 2010년부터 전개

기후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90ppm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CO_2 레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춰야 할까.

전 미국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기후과학자인 제임스 한센 박사는 '대기권 이산화탄소 목표치: 인류의 목표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만약 인류가 지구를 문명이 발전하고 생명체가 적응할 수 있는 행성으로 보존하기를 희망한다면 CO_2 레벨은 현재의 385ppm에서 최대한 350ppm으로, 가급적이면 그보다 더 낮은 레벨로 저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수석 기후학자이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인 파차우리는 지난 2009년 프랑스 통신사 AFP와의 인터뷰에서 "IPCC 의장으로서 견해 표명은 할 수 없지만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350ppm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지 않는 이산화탄소 농도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 밑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고 영구동토층이 융융하면서 지하에 묻혀 있던 메탄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폭염, 홍수, 가뭄, 농업 생산량 감소, 열대성 질병 발생 등과 같은 기후변화 현상들이 심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350ppm은 인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대 이산화탄소 농도인 셈이다.

현재 전 세계 188개국에서 사진과 UCC,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자는 350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재단이 2010년부터 범국민적인 '350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리더십 5기 과정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350 약속 퍼포먼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방지 프로젝트인 350캠페인은 미국의 환경운동가 빌 멕키벤(Bill Mckibben)에 의해 2007년에 시작됐다. 앨 고어와 남아공 투투 대주교(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와 수백 개의 환경단체가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50운동은 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압력이기도 하다. 200년 전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비율은 280ppm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과학자의 지지를 얻어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는 이산화탄소 비율의 상한선을 350ppm으로 줄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미국의 350운동 참여자들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입법과 행정기관의 행보를 감시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캠페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ShinhanCard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BIG to GREAT를 향한 새로운 도전

Code9에 디자인을 입히다

신한카드 Re:Frame

Easy Pick
프레임에 홈을 만들어
지갑에서 빼기 쉽게!

Easy View
지갑에 꽂혀 있어도
카드명이 잘 보이게!

Easy Find
결제할 때 카드 방향이
잘 구분되게!

VISA Quick Read
세계 최초로 결제에 필요한
카드정보를 한 곳에!

신한카드 Re:Frame
리 · 프 · 레 · 임
일상생활 속 작은 불편함까지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신한카드만의 디자인 철학
카드 디자인을 새롭게 혁신하다

3대 조사기관 브랜드평가
3년 연속 트리플크라운

BIG to GREAT 신한카드

신한금융그룹 | 신한은행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타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KB 회장 4파전 압축, 내부냐 외부냐

회추위, 내부 출신 3명 선정
외부 출신은 하영구 행장 유일
'내부 중용 의지' 분석 많지만
'외부 회장·내부 행장' 전망도

KB금융 회장 선임을 위한 마지막 결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내부와 외부 출신 후보가 고르게 선출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1명이 2차 명단에 올랐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내부 중용 의지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란 평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추위는 전일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4명을 회장 후보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은 국민은행은 물론 학계와 민간 연구소, 금융감독원까지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다. 지주사 설립기획단장으로서 그룹 경영체제의 기틀 짠 경험이 있어 내부 사정에 밝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그러나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금감원에 몸담았다는 점이'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종규 전 부사장은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 받았으며, KB금융 내부에서는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 받는다. 4명의 후보 중 KB재직 기간이 가장 긴데다 온화한 성품으로 그룹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다만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로 2004년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동현 전 부사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조흥은행 부행장, LG카드 부사장,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 역시 따뜻한 성품을 갖춰 덕장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건호 전 행장과 같은 연구원 출신인 탓에'연피아'거부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일한 외부 인사인 하영구 행장은 은행장으로서만 14년간 재직할 정도로 전문성 부분에서는 단연 앞선다. 경험과 인맥, 글로벌 경영 감각이 최대 강점이다. 다만 유일한 외부 인사란 점과 씨티은행에서의 구조조정 경력이 노조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회추위는 여론의 높은 관심을 의식해 그 어느때 보다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유력 후보로 떠올랐던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과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제외되는 등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 전 부사장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된 것은 회추위의 내부인사 중용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란 분석이다. 내부 후보가 3명으로 늘은 만큼 선출 확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영진 회추위원장은 내부 출신 인사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일한 외부 출신인 하영구 행장의 선임을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걸 전 부회장을 떨어뜨려 하 행장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 회추위원들은 '외부 회장 & 내부 행장'구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유력 후보였던 이동걸 전 부회장이 떨어지고 완주 의지를 의심받았던 지동현 전 부사장이 2차 후보로 선정되면서 이미 회장 선정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최종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KB금융 회장 후보 장 · 단점 ※가나다순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나이(고향)	57(서울)	59(나주)	56(여수)	61(광양)
출신학교	경동고, 미국 바랫대(경영)	광주상고, 성균관대(경영)	보성고, 서울대(경영)	경기고, 서울대(무역)
장점	지주사 경영체제 기틀 마련, 수석부행장 지내 내부사정 밝아	재무,회계 강한 전략통…4인 후보중 가장 오래 KB근무	연구소, 은행, 카드사 두루 거쳐 이론과 실무 겸비	14년간 외국계 은행에서 쌓은 인맥과 글로벌 경영감각
단점	금감원 재직 경력으로 '관피아' 논란 불거질 가능성	은행-카드 합병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징계받아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연피아' 논란 부담	외부 인사, 씨티은행 구조조정 경력에 노조 반발 가능성

홍기택, 독일서 외친 '통일금융'

〈KDB금융지주 회장〉

KfW 본점서 '통일금융과 개발금융기관의 도전' 워크숍

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이 '통일금융' 선도를 위해 독일재건은행(KfW)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KDB산업은행은 1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KfW 본점에서 '통일금융과 개발금융기관의 도전'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fW는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으로 전후 독일의 국내 산업 재건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통일 이후에는 동독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전담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양 기관은 통일금융과 중소기업 창업지원, 온렌딩(정부가 은행에 위탁해 지원하는 간접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도국 개발금융 분야 등에 관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KDB는 통일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북한 국영기업과 합작사업 추진, 인프라 민자사업 등 통일금융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 KfW 협력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신규공단 조성 지원, 국제 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을 제안했다.

홍기택 회장은 "KfW의 성공적인 중소기업 활성화, 개발도상국 금융지원 업무뿐 아니라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경제의 부활을 지휘한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리더십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일은 통일을 넘어 이미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KfW의 값진 노하우는 통일금융을 선도하는 국책은행인 KDB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홍기택 회장과 슈뢰더 KfW 회장이 합의한 양 기간관 협력사업의 첫 번째 성과다.



왼쪽부터 김영훈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노버트 클로벤부르크 KfW 국제금융부문 이사,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KoFC 진웅섭 사장.

김미정 기자 mjk@

신한금융, 2년 연속 'DJSI 월드' 편입

"사회책임경영·투명한 보고 성과"

신한금융그룹은 16일 세계적인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DJSI 월드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World)에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편입됐다고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된 기업은 총 319개로 이는 평가대상 기업 중 12.6% 에 해당하는 수치다.



은행 산업에서는 웨스트팩(Westpac),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PLC), 씨티(Citigroup Inc), BNP파리바, 바클레이스를 비롯해 전세계 25개 회사가 편입됐으며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신한금융이 작년에 이어 유일하다. 김민지 기자 kimmj@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이번엔 발레

프랑스 발레단의 '스노 화이트'

현대카드가 16번째 컬처프로젝트로 프랑스 프렐조카쥬 발레단(BALLET PRELJOCAJ)의 발레작품 '스노 화이트(Snow White)'를 선정했다.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는 전 세계 다양한 컬처 아이콘을 찾아 소개하는 문화 마케팅 브랜드다. 현대카드는 하이브리드 팝의 아이콘 제이슨 므라즈의 부산 공연을 비롯해 일렉트로닉 음악의 시초인 크라프트베르크의 3D 공연 등을 컬처프로젝트로 선보였다.

발레 스노 화이트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발레 안무가 앙쥴렝 프렐조카쥬(Angelin Preljocaj)가 설립한 프렐조카쥬 발레단의 공연이다. 파격적인 무대 연출로 유명한 앙쥴렝 프렐조카쥬는 널리 알려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대신 그림 형제의 원작을 기반으로 사랑에 눈을 떠 가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현대 발레로 그려냈다.



박엘리 기자 ellee@

부실 커지는 상호금융… 감독은 뒷짐

3년간 대출 연체금액 34% 급증
관리감독 부처 분리로 '사각지대'
수협·산림조합 외부감사 거의없어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상호금융 대출이 19% 증가한 가운데 연체 금액은 34%나 급증해 자산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249조 7858억원에서 지난 7월 296조5661억원으로 46조7803억원 늘었다.

연체액은 2011년 13조8796억원에서 2014년 18조6443억원으로 약 4조7647억원(34%)이 증가했다. 가계부채 금액을 대출 연체금액으로 나눈 연체율은 2011년 5.56%에서 2014년 6.29%로 높아졌으며, 이중 신협의 경우 연체율이 2011년 5.78%에서 2014년 12.2%로 약 2.1배 급증했다.

가계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법령에 따라 여러 부처로 분리돼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수협과 산림조합은 부처의 기관장에 재량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 이후 수협이 외부감사를 받은 곳은 전혀 없었고, 산림조합은 지난해 2곳이 외부 감사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4개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외부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조합 2337개 중 63곳(2.7%)만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 김민지 기자 kimmj@

대웅제약

B

비타민B의 효과!
활성과 함량의 차이를 따져보세요

활성형 비타민[1)]
활성형 벤포티아민은 일반 티아민에 비해 빠르게 흡수되고, 8배 이상의 생체이용률을 보이는 비타민입니다

고함량 비타민[2)]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최적 섭취량을 만족시키는 고단위 함량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권장섭취량의 약 2~100배 이상)

1) The Real Vitamin & Mineral Book, 4th ed. penguin, 2007
2) J Gerontol. 1991 Jan;46(1) : M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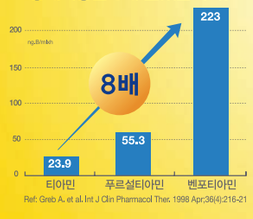
피로에는
임팩트 비타민 임팩타민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세요

✓활성형 벤포티아민 함유로 생체이용율 8배 우수
✓비타민B 10종, 아연, 비타민C 함유
✓소형정제로 복용 편리

효능효과 : 육체피로, 체력저하, 눈의 피로, 구내염,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생체이용율 8배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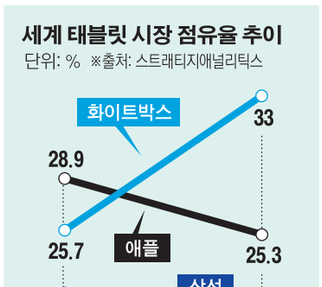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상담실 080_550_8308~9 / www.impactamin.com ▶광고심의필 : 1266-2804

식사 후 바로 복용하세요 –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아 빈 속에 복용시 일시적으로 미식거림, 속쓰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플-삼성 태블릿 PC 사양 비교
※출처: 각 사



	아이패드 에어2	아이패드 미니3	갤럭시탭S(LTE)	갤럭시탭4
프로세서	A8X 프로세서	A7 프로세서 · M7 모션 보조 프로세서	2.3GHz 퀄컴 스냅드래곤 800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운영체제	iOS 8.1	iOS 8.1	안드로이드 4.4.2 킷캣	안드로이드 4.4 킷캣
디스플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2048×1536)	레티나 디스플레이(2048×1536)	슈퍼아몰레드(2560×1600)	1280×800 해상도
카메라	후면 800만 화소 · 전면 120만 화소	후면 500만 화소 · 전면 12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 · 전면 210만 화소	후면 300만 화소 · 전면 130만 화소



새 아이패드… 더 뜨거워진 '왕좌의 게임'

애플, 차세대 태블릿 '에어2''미니3' 공개

에어2, 18% 얇아지고 처리속도는 12배 높여

삼성 '갤럭시탭S' 중국산 '화이트박스'와 경쟁

삼성전자와 애플 간 태블릿 시장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태블릿 시장 1위 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블릿은 성장 한계에 처한 스마트폰 사업 부진을 보완할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주력 분야로, 삼성전자는 특화 전략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애플은 16일(현지시간) 차세대 아이패드 '아이패드 에어2'와 '아이패드 미니3'를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아이패드 에어2는 지문인식 감지기 '터치ID'가 탑재되는 등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전작보다 두께가 18% 얇아지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을 구현했다. 여기에 'A8X' 프로세서를 탑재해 처리 속도를 12배 높였다.

태블릿의 전통 강호 애플이 새로운 태블릿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삼성전자와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화 태블릿을 통해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 시장에서도 세계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갤럭시탭' 출시로 태블릿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중저가 제품군인 갤럭시탭 라인업을 기본으로 프리미엄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갤럭시프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탭S', S펜을 탑재한 '갤럭시노트 프로'까지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책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탭4 누크', 어린이용 태블릿 '갤럭시탭3 키즈', 기업용 태블릿 '갤럭시탭 액티브', 통신 기능을 달리한 태블릿 등 파생모델도 크게 늘리는 추세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사업 강화는 성장 정체에 빠진 스마트폰 사업을 보완하려는 의도와 함께 중국의 빠른 부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태블릿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 선두 그룹을 중심으로 중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 2분기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3.6%포인트, 7.3%포인트 하락한 25.3%, 15.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브랜드 없는 중국산 저가 태블릿을 일컫는 화이트박스의 점유율은 33%로 7.3%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태블릿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삼성전자는 애플뿐 아니라 중국, 대만 등 후발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시장도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올해 태블릿PC 관매량은 전망치 6000만대에 훨씬 못 미친 4000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비리' 홈쇼핑 어이할꼬

내달 사업자 재승인 앞두고 긴장

'업계1위' GS샵마저 수사 선상에

공영 '제7홈쇼핑' 출범 목소리도

내달 '홈쇼핑사업자 재승인'을 앞두고 홈쇼핑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슈퍼 갑' 행세를 하며 납품비리를 저질러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 1위 GS샵마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기존 업체들이 비리 업체들로 낙인이 찍히면서 필요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제7홈쇼핑 출범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샵 전현직 임직원들이 납품 대행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S상무와 전직 L전무가 수억원대 뒷돈과 함께 납품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Y 상무가 자회사인 GS샵 T&M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직원 계좌와 납품업체 법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GS샵 관계자는 "정황을 파악 중인데, 비리는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수사에 의해 밝혀질 사안이지만, 횡령은 경영실패에 의해 자회사를 청산한 것인데 무리한 해석이 따른 것 같다"며 "검찰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 파악이 끝나야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직적인 납품비리에 연루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8월에는 상품거래를 위장해 94억원대 카드깡 영업을 벌인 NS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롯데홈쇼핑의 체계적인 비리 사건의 파장은 컸다.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복되는 홈쇼핑업계 비리는 개인 비리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내달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접수절차에서 롯데홈쇼핑처럼 노골적인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일벌백계 해야 하고, 퇴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의 퇴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위 업체마저 비리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제7홈쇼핑 출범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제7홈쇼핑은 그동안 필요성의 당위성을 찾지 못해 출범 여부 논란에 휩싸였지만, 공영 홈쇼핑의 주요 설립 근거 중 하나가 기존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허창수 GS 회장

"동남아 적극 공략 성장 발판 만들자"

인도네시아서 사장단 회의



허창수(사진) GS그룹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불러 모아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 동남아 시장이 야말로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GS그룹의 주요 계열사 사장단은 15~16일 이틀간 자카르타에 모여 사장단회의를 가졌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경제협력포럼과 일정이 겹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허창수 회장은 대신 사장단에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허 회장은 "지속성장하려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전략을 분명히 세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 적극 진출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소한 환경에서 사업하려면 어려움도 크겠지만, 오히려 기회 또한 많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지 진출 국가와 함께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면 우리만의 경쟁우위를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그룹 사장단은 동남아시아 시장이 지하·농업·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 해외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주민불편부터 해결하라"… 롯데월드몰 찾은 신동빈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6일 잠실 롯데월드몰을 둘러보고 개장 상황을 점검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월드몰 내 하이마트 매장을 방문해 가전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권오갑 회장 '쇄신칼날' 다음은 어디로

〈현대중공업〉

임원 262명→81명 대폭 감축

사업조정도 조만간 단행 전망

1순위 그린에너지 사업 꼽아

해양플랜트 부문 축소 전망도



권오갑(사진) 현대중공업 사장 16일 고강도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권 사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무사안일과 상황 논리만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인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전체 임원 262명 중 81명이 짐을 싼 것도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얘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임원 감원과 함께 31명을 승진시키고 28명을 신규 선임해 최종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전체 임원은 209명이 됐다. 이는 인사 전보다 20.2% 줄어든 규모다.

취임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권 사장이 발빠르게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조정도 조만간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권 사장은 취임 직후 사업조정을 위한 경영진단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린 만큼 이미 일부분 가시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그린에너지, 건설장비 등 7개 사업본부와 안전경영지원본부 등 총 8개 본부로 구성돼있다.

이 중 구조조정 1순위는 그린에너지 사업이다. 그린에너지사업본부의 주력은 태양광, 풍력, ESS(전력저장설비)다. 이 중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사업과 ESS 역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난해 1031억5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건설장비사업본부도 사업 재편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사업의 주력 제품은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1조원 매출에 영업이익률 7.4%를 보이던 건설장비사업본부는 올해 2분기 매출 8000억원대, 영업이익률 2.7%가량으로 상황이 악화됐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상선 쪽을 더 강화해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대형마트 '랍스터 전쟁'

이마트, 한마리당 9900원

롯데마트는 1만1800원에

'킹크랩' 반값 행사도 펼쳐

대형마트발 갑각류 전쟁이 올 가을에도 연례행사처럼 발발했다. 대형마트 3사의 살아있는 미국산 '바닷가재(랍스터) 전쟁'이 이번 주말부터 치열한 한 판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에 반값 킹크랩까지 가세해 가을 유통가의 '갑각류 판매전'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이마트는 지난 16~22일까지 미국산 활(活) 랍스터를 일주일 간 9900원에 판매한다. 지난해 10월 9990원보다 90원 싼 가격이다. 지난해 총 60만마리의 랍스터를 판매한 이마트는 올해는 9월까지 50만마리를 시중에 풀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100만마리 판매는 충분히 돌파할 전망이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랍스터를 1만1800원에 판매한다. 지난달 25일부터 판매를 시작해 이달 1일까지 15만마리를 팔아치운 여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킹크랩 판촉전도 뜨겁다. 롯데마트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전점에서 1마리(2kg)당 7만원에 킹크랩을 판매한다. 그간 100g당 7000원 수준이었지만 행사 가격은 35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진 것이 특징이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롯데마트에 앞서 킹크랩 행사 기획에 나섰다. 이마트는 킹크랩 1마리(1.5kg)당 4만2800원, 100g에 2850원이라는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홈플러스도 기존 가격보다 20% 저렴한 100g당 3980원에 판매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이번 주말에 대형마트 킹크랩 값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철규 기자 yoonck@

대원제약 '오티렌' 등 신제품 효과에 쑥쑥

올 매출액 1800억 육박할 듯

ETC(전문의약품) 중심의 중견 제약사인 대원제약이 지난해 출시한 효자품목 '오티렌(위염 치료제)' 등 신제품의 매출 호조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4분기에 매출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 연간 예상 매출액은 1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대원제약과 의약품조사 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 등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지난달 원외처방 조제액은 1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했다. 이는 상위 제약사 10곳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대원제약만이 유일하게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오티렌과 '베포스타(항히스타민제)' 등의 신제품이 상당 부분 매출에 기여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오티렌의 지난달 원외처방 조제액은 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고, 같은 기간 베포스타의 경우 43.2% 증가하면서 올들어 지난달까지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ETC 19품목에 대해 개발을 완료하고 출시했다"며 "효자품목인 오티렌의 경우 지난해 출시하자마자 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거뜬히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월드푸드’ 토마토 앞세워 해외공략… “2020년 수출 1억달러”

월드클래스를 향해

⑨ 정용동 농우바이오 대표



정용동 농우바이오 대표이사와 6일 경기도 수원 농우바이오 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정 대표는 인터뷰 내내 해외시장 공략을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내 대표 종자기업… 매출의 15% R&D투자 육성기술 개발
브로콜리 등 다양한 품종으로 승부 “글로벌 톱10 진입할 것”

정용동 농우바이오 대표는 조심스러웠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국가대표 ‘종자기업’이라는 자부심과 종자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정과 말투에 그대로 묻어났다. 특히 정체돼 있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종자’로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는 정 대표의 의지는 농우바이오를 이끄는 근간이다.

경기도 수원 농우바이오 본사에서 최근 만난 정 대표는 인터뷰 내내 해외시장 공략을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정 대표는 “규모 상으로는 아직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엔 작지만, 오는 2020년까지 1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900억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톱10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정체돼 있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성장·발전하기 위해선 글로벌로 가야 한다”며 “1994년 중국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미얀마 법인 등을 설립하고 세계 70여개국과 무역을 진행해왔던 것이 농우바이오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우바이오는 고(故)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1967년 창업한 종자기업으로, 약 1500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농우바이오는 종자사업과 함께 원예용 상토, 수도용 상토를 판매하는 상토사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규모는 약 8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도 선정되며, 종자업계 대표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농우바이오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농우바이오는 대한민국 종자 대표 기업”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1, 2위를 다투던 서울종묘, 청원종묘, 흥농종묘 등 토종 기업들이 스위스, 일본 등 다국적 기업들에게 넘어간 반면 농우바이오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을 중요시했던 창업주의 경영철학도 농우바이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정 대표는 “매년 매출의 약 15%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자체적으로 바이오(BT)를 접목한 새로운 육성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R&D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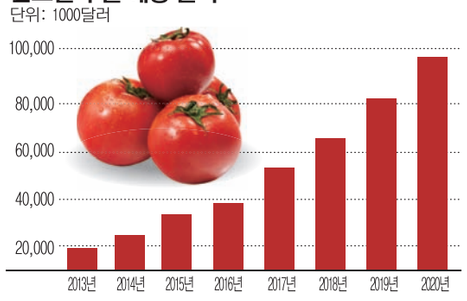
정 대표는 꾸준한 R&D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대표 종자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액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150억원이었던 수출은 지난해 205억원까지 늘었다.

정 대표는 “우선 국내 업계가 취약한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 등 글로벌 채소를 중심으로 국내 영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외공략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는 국내와 해외영업 비중이 7 : 3인데, 오는 2017년까지 5 : 5로 맞추고 2020년에는 수출이 내수를 앞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우바이오의 전략도 다소 수정될 예정이다. 다양한 품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토마토’가 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도 높은 토마토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토마토에 많은 투자를 집행해 국내 미니 토마토 시장에서 우리 제품 비중이 70~80%까지 올라왔다”며 “중국, 유럽, 중남미 등에 토마토를 공급하면서 향후 글로벌 기업 대열에 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수출 예상 실적
단위: 1000달러



브로콜리 역시 정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그는 “토마토 다음에 미국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브로콜리”라며 “5년 전 미국에 관련 연구원을 파견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어, 앞으로 상용화되면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우선 중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미 법인을 통해 현지에는 진출한 상태다. 그는 “중국 법인의 올해 매출이 약 70억~80억원이 될 정도로, 큰 시장이어서 잠재력이 엄청나다”며 “현재 갖고 있는 품목을 통해 공략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중국,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시장 규모를 가진 인도를 우선적으로 공략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신개척지로는 터키를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께 새로운 법인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터키를 시발점으로 스페인, 러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해외법인을 현재 5개에서 9~1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우바이오는 최근 농협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농협’이란 든든한 지원군도 등에 업었다. 다만, 농우바이오는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창업주 일가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매각한 사례여서 내부 조직이나 대리점주들이 다소 흔들리기도 했다.

그는 “비중이 컸던 대주주들이 빠지면서 내부적인 불안, 혼란 등이 당연히 있었고 대표로서 스트레스도 상당했다”며 “경영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농협으로 인수되면서 직원 이탈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너무 형평성, 공평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지원을 해도 경쟁이나 기대가치가 없는 곳에 한다면 의미가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농협 편입… 종자기술 대도약 기회

농협경제 계열사와 시너지 기대
우수 인력확보에도 긍정적 효과

농우바이오가 최근 농협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대변화의 기점을 맞았다. 그동안 쌓아왔던 농우바이오만의 종자 기술력에 더해 농협의 든든한 지원까지 이어진다면 큰 폭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농우바이오는 우선 같은 종자 계열사인 농협종묘와 시너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똑같은 종자기업이지만 유통채널을 두 가지로 나눠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우바이오는 기존과 같이 대리점과 육묘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농협종묘는 농협 점포에만 종자를 공급하는 형식이다.

양사 모두 기존 거래처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고객 충성도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 세분화를 통해 영업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우바이오는 종자, 농약, 비료, 상토 등 패키지 상품 구성으로 계열사 상품을 공동으로 홍보·판매하는 연계전략도 구사할 예정이다.

정용동 농우바이오 대표는 “농협중앙회에서 농우바이오의 연구개발(R&D)을 30%로 끌어올려서라도 종자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농협이 우리를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데 인프라, 자금조달 문제 등의 한계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농협경제지주 계열사들과 해외시장 정보 공유는 물론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농우바이오 해외연구소에서 농협조합원의 수출용 농작물 재배·유통을 진행하는 식이다. 또 농우바이오의 해외법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농협경제지주 계열사도 신사업 교두보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 인재확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가 1위 기업이지만 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그동안 우수한 인력을 농협종묘나 동부팜 등 경쟁사로 많이 뺏겨 핵심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농협 계열사가 된 만큼 앞으로 우수 인력 확보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우바이오는 농협 계열사 편입 이후 R&D 역량 등을 강화해 채소 종자 신(新) 주력 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옥수수, 화훼 연구개발을 통한 판매사업을 론칭하고, 기능성 채소를 활용한 건강기능 제품·음료도 개발할 방침이다.

농우바이오 관계자는 “농협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만큼, 오는 2020년 이후 미래 다국적 종자기업이 되기 위한 기반 역량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유 기자 thec98@

공동기획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美 증시 급락, 최대 원인은 피어볼라"

〈Fear+Ebola·에볼라 공포〉

정부 통제 실패… 기업 실적호조에도 '투자심리' 위축
오바마 해결책 마련 몰두… 일각선 "중대위협 아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에볼라 공포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 사이에 정부가 에볼라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쿠들라 메인스테이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신뢰하고, 병원의 치료 체계에 대해 안심할 때까지 시장의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C방송의 주식 전문가 짐 크레이머는 "상당수의 기업이 호전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투자자들이 에볼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에볼라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업종의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한 부침을 겪을 전망이다.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생산하는 일부 생명공학기업의 주가는 급등했지만, 에볼라 사태에 따른 여행 위축 등의 우려로 항공업종과 호텔·숙박업종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에볼라 사태가 증시를 좌우할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 테라노바 버튜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수석 투자전략가는 "에볼라 충격이 엄청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대한 헤드라인인 것은 맞지만,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에볼라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틀째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에볼라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백악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비군의 현역 동원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에볼라 확산 우려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에 비상사태(state of disaster)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는 최근 급락세에서 벗어났지만,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15% 하락하며 상승 전환에 실패했다.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를 돌보던 텍사스건강장로병원의 간호사 2명이 잇따라 에볼라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 중 한 명이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에볼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中 4중전회 20일 개막
'법치·개혁' 최대 화두

시진핑, 부정부패 척결 연장
저우융캉 사법처리 결정예정

리커창 "경착륙 우려 안해"
지속적 경제성장 재확인도

중국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법치'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월 이미 이번 4중전회의 주제가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라고 공개했다. 과거 4중전회에서 주로 다뤘던 의제들이 경제에 치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주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력히 추진하는 부정부패 척결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법치와 관련해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했던 저우융캉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사법처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민일보는 15일 온라인 기사에서 "4중전회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쌍규(공직과 당적 박탈)처분과 부패건에 대한 사법부로의 이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지방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지방법원의 독립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지방법원 직접 지휘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개념의 반부패총국을 설립해 각 지방정부에 예속됐던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반탐국)이 분리돼 반부패총국 밑으로 들어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4중전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는 최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하강압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착륙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개혁 가속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중 전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 냉각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승인될 전망이다.

국무원은 이달 초 '지방 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방정부가 부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은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로 불안정한 홍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은 '일국양제'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나 유화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글 어닝쇼크 하루새 3% 뚝

3분기 순익 28억달러…5.4%↓

세계 최대 인터넷검색업체 구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공개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3분기에 28억1000만 달러, 주당 4.09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29억7000만 달러, 주당 4.38달러에서 5.4% 감소한 것이다.

특별항목을 제외한 주당순익은 6.35달러였다. 같은 기간 매출은 137억5000만 달러에서 165억2000만 달러로 늘었다.

이는 톰슨로이터를 통해 월가가 예상한 주당순익 6.53달러, 매출 165억7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요 수익원인 클릭당 과금(CPC)은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유료 클릭 수는 17%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구글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아론 케슬러 레이먼드제임스 애널리스트는 "구글의 핵심 매출은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했다"면서 "달러 강세를 고려하면 주당순익 역시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매출 대부분을 검색과 광고사업에서 올리고 있다. 구글의 글로벌 검색광고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케슬러 애널리스트는 "구글의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15배 정도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나스닥 정규 거래에서 1.04% 하락한 구글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로 2.04% 빠졌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월마트, 비정규직 건강보험 지원중단 반대"



16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유통체인인 월마트 직원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워싱턴DC 백악관 근처 도로를 점령했다. 이날 16명의 시위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최근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미국 건강보험개혁안의 여파로 미국 기업들이 비용 관리에 들어선 가운데 월마트가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3만명에 대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그 외 직원들에게도 직원부담분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美인플레 기대이하…양적완화 지속"

'매파' 제임스 블라드 연준은행 총재 주장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내부에서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럽의 침체 위기와 아시아의 저성장 우려로 시장이 요동치면서 연준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블라드〈사진〉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이 양적완화(QE)를 지속해야 한다고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그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안주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연준의 목표에 근접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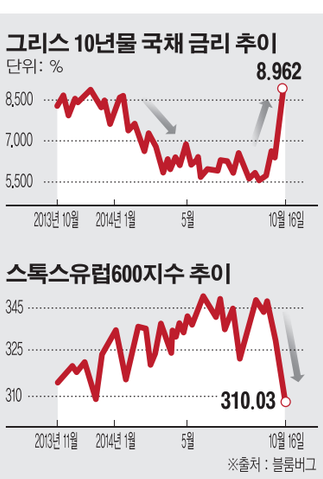
아울러 "테이퍼링(tapering)을 잠시 멈추고, 12월까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며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12월에 종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연준 내부에서 처음으로 양적완화의 종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발언이 매파로 분류되는 블라드 총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위기의 유로존, 자금 '엑소더스'

그리스·포르투갈 등 채권시장 투자자 이탈
안전자산 獨에 몰려…증시도 '나홀로 상승'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이 2010~2012년 재정위기와 같은 혼란을 다시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유로존 국가의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매도세가 집중된 곳은 그리스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국가들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날 가장 요동친 곳은 그리스 채권시장이다. 그리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무려 1%포인트 이상 올라 9%에 육박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경제를 살리려는 그리스 정부의 희망도 꺾일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 초반 약 30bp(bp=0.01%P) 가량 올랐다. 투자자들은 이들 국가 채권시장에서 손을 떼는 대신에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독일 국채 투자를 늘리고 있다. 독일 국채(분트) 10년물 금리는 장중 0.7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증시도 전날 급락에 이어 이날도 소폭 오른 독일을 제외하고 하락세를 이어갔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0.43% 내린 310.03을 나타냈다. 영국증시 FTSE100지수는 이달 들어 10% 빠졌다. 그리스증시가 2.2%, 포르투갈증시가 3.2%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유럽 경제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 지역 지도자들이 경제정책을 놓고 분열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럽 경제 성장세를 살리려면 지도자들이 협조해 일관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독일이 주도하는 재정 긴축정책의 완화를 원하고 있으나 독일은 후퇴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아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봉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총리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가을제사 시작일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중심가인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에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고 신사 측이 밝혔다. 명의는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공물을 보낸 만큼 가을제사 기간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중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현직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1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중심가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놓인'마사카키'공물 명의가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로 적혀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美재정적자, 금융위기 이후 최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 재무부 집계에서 지난 9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 정부 재정적자가 4833억 달러(약 513조원)를 기록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적자 규모가 29% 줄어든 것이다. 특히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로 2008 회계연도 이후 가장 낮았으며 최근 40년 평균인 3.1%도 밑돌았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지출 증가율이 하락한 것이 적자 축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알리바바 '솔로데이' 매출목표 10조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창조경제'라고 극찬한 알리바바의 올해 솔로데이(11월11일)의 매출 목표가 600억 위안(약 10조원)이라고 16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11월 11일은'1' 이 4개 겹쳐 있다고 하여 '솔로데이''광쿤제'로 불리고 있다. '광쿤'은 중국어로 홀아비, 독신남,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지난 2009년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몰에서 솔로를 위한 할인행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솔로데이는 현재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1월 리 총리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을 중국 국무원에서 주최한 경제간담회에 초청해"'솔로데이'행사가 중국 창조경제를 일궈냈다"고 극찬하며 마 회장을 높이 평가했다.

알리바바는 "올해 솔로데이의 하루 매출 목표가 600억 위안이고 이번 행사부터 기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이시와타 고이치 '센스의 차이'

'센스'라는 용어는 대체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센스는 암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큰 반면, 스킬은 형식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학교를 떠난 다음 어떤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엔 센스의 소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문제를 개인의 체험담에 근거해 쓴 책이 '센스의 기술'(이사와타 고이치 저)이다.

저자의 경력이 이채롭다.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권의 책, 즉 '카피라이터 입문'과의 만남이 인생 항로를 바꾸게 된다. 이 책 때문에 카피라이터가 된 저자는 쟁쟁한 사람들의 활동 무대인 제이월터톰슨(JWT)에서 일하게 된다. 저자는 칸국제광고상, 런던국제광고상 등 권위 있는 상을 받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도 하다.

"A씨는 영어도 잘하고, 자료도 꼼꼼하게 만들기로 유명해. 그런데 왜 최고라는 인정을 못 받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센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단정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고 펼친다. "스킬을 이용한 성과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빈약한 학력으로 치열한 광고업계에 입문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결심을 털어놓는다. "남들보다 몇 배나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센스를 키워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어도 잘하고 실력은 있는데
왜 '최고'로 인정받지 못할까
스킬만을 이용한 성과는 한계
센스가 당신의 성공을 좌우한다

추상적으로 보이는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센스는 '정보 수집 능력', '선택 능력', '전달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첫째, 정보의 절대적인 양을 늘린다. 둘째, 원하는 정보를 선택한다. 셋째, 능숙하게 전달한다. 이 3단계를 어떻게 밟을 수 있는지, 개인적 체험담에 바탕을 두고 소개하는 책이다.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각 한 장씩 수집 방법, 선택 방법, 그리고 전달 방법을 다룬다.

다소 파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1장에서는 정보원을 넓히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세컨드 잡'이다. 저자의 주장은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본다. "뭔가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한 가지 일에만 갇혀 있지 말고, 살짝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일과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광고업계에 몸담고 있는 자신이 남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컨드 잡이란 용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좁은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는 일은 의미 있는 시도다. 이제껏 해 보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본업을 벗어나더라도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편안한 것을 원한다. 그런데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자꾸 맡도록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사람은 벽을 하나씩 넘어서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늘 익숙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축소할 수밖에 없다. 어떤 장소에 가든지 중심에 선다는 것은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일이다. 이것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궁한 채로 난관에 빠진 회의장에서 멋진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받을 것이다.

이처럼 '크리에이티브 정보 제공자'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때만 센스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비주류로 정상에 선 저자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실용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正論

'왔다 장보리' 김순옥, 임성한과는 다르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MBC '왔다 장보리'가 종영했다. 막장 드라마 논란은 마지막 방송에서도 터져나왔다. 희대의 악역 연민정(이유리)이 결국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녀와 헤어진 문지상의 새 연인으로 갑자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민소희(이유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유혹'에 나왔던 민소희라는 캐릭터의 일종의 카메오인 셈이다. 반응은 엇갈렸다. "재미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지나치다며 "시청자를 우롱했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왔다 장보리'이지만 흥미로운 건 이 드라마가 막장이라고 불리면서도 동시에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요즘 노랫가락처럼 '막장인 듯 막장 아닌 막장 같은 드라마'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막장 썸을 타는 드라마.

이런 반응이 생긴 것은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이고 완성도도 낮은 반면,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보편적인 권선징악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대의 악역 연민정은 결국 모든 걸 잃었고, 반면 핍박받던 주인공 장보리(오연서)는 모든 걸 얻은 인물이 되었다. 시청자들이 바라던 것을 드라마는 마지막 부분에 이뤄 주었다.

'왔다 장보리'는 기존 막장 드라마들과 달리 새로운 가족관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낳은 부모라고 다 진짜 부모가 아니고, 기른 부모라고 다 가짜 부모가 아니라는 걸 '왔다 장보리'는 보여주었다. 혈연의 틀에 꽉 붙잡혀 있는 막장적 가족 드라마들이 흔히 보여주는 전개와는 사뭇 다르다. 혈연주의를 보여주는 막장 드라마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왔다 장보리'를 쓴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는 막장의 대모라고 불리는 임성한식 막장과는 다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나름대로의 주제의식을 갖추고 있고(물론 그것이 너무 틀에 박힌 권선징악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그나마 드라마라는 극의 틀을 깨지는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오히려 '왔다 장보리'는 그 드라마트루기의 공식들을 너무 잘 실행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갈등들과 해결들을 제대로 보여준다. 물론 지나치게 공식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임성한식 막장 드라마는 아예 이 드라마의 공식 틀 자체를 깨버리는 파행을 보여준다.

'오로라 공주'가 방영될 때 시청자들이 퇴출 서명까지 했던 것은 그래서다. 드라마의 캐릭터란 적어도 작가가 내보일 때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시청자와의 공유물인데, 임성한 작가는 그 약속을 깨버리고 제 맘대로 캐릭터들을 유린했다. 시청자가 캐릭터에 몰입해 드라마라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유린은 어쩌면 시청자에 대한 유린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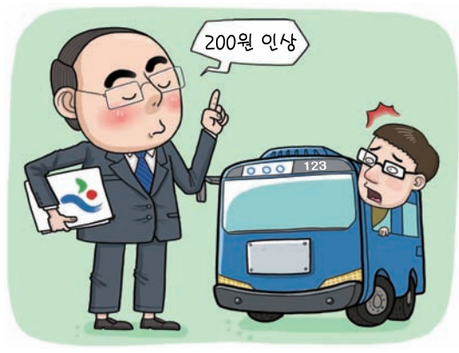
이것이 '왔다 장보리'를 쓴 김순옥 작가와 '오로라 공주'의 파행을 보여준 임성한 작가의 차이다.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면서도 시청률 40%에 육박하는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일종의 룰이 정해진 '드라마 게임'을 즐기기 위함이다. 마치 아이들이 하는 놀이 같은 이것은 다분히 퇴행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그 비현실적인 퇴행에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에서 비롯된다. 막장 드라마를 보며 "저런 게 어딨어" 하고 말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신문 사회면의 작은 기사들을 통해 매일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우리가 늘 바라는 대로 결말이 지어지진 않는다.

그러니 공식화된 권선징악의 막장 드라마의 퇴행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 세계에서는 적어도 연민정 같은 악녀의 끝장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틀은 적어도 유지해야 한다. 임성한식 파행으로는 카타르시스마저 줄 수 없다.

온라인 와글와글

또 들썩이는 지하철·버스요금, 자전거 타고 다닐래~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면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함께 오르게 되므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은 "작작해라 진짜", "자전거 탑시다", "내리는 건 비와 눈물뿐이구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 네티즌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원들 세비·고위 공무원 월급부터 팍팍 내린 후 다시 논의하자" 등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빛이 많아지면 민영화될 확률만 높아진다. 민영화되면 요금 올리는 건 회사 마음대로다. 차라리 인상이 낫다", "정확하고 빠른 우리 지하철 수준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올려도 부산보단 싸네" 등 동조 의견도 간간이 보였다.

○…과자값이 2012년 5.6%, 2013년 3.6%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분기 3.4%, 2분기 7.2%, 3분기 7.0%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곡물가도 떨어지는데 홀로 오르는 과자값에 네티즌은 "계속 고공행진해서 한국 과자업체 다 망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담배 끊고 아이들은 과자 끊자", "오늘 직촉 먹는데 깜놀. 자꾸 작아지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기현상", "원재료 오를 때는 난리를 치며 올려놓고 원재료 내릴 땐 쥐도 새도 모르게 이익을 늘려나가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트에서 과자를 파나요? 질소 봉지에 조금 들어있는 그거 말인가요?", "제조사 입장 : 곡물값 하락했지만 질소값이 비싸기 때문", "질소값이 안 떨어지는가 보네요" 등 일명 '질소과자'에 대한 비아냥이 이어졌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미국 IS 요원 수백 명 사살… "전황은 아직도 불리해"
2. 애플, '세상서 가장 얇은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2 공개
3. 천안함 배후 北김영철 등장… 사과 요구에 반응이?
4. 추성산성 고려목책 발굴서 '낭무' 국내 최초 발견
5. 러버덕 열풍 '대단'… 한정판 인형 구매수량 제한까지

오늘의 BAE 배국남닷컴 www.baekn.com

'크레용팝' 유닛 '딸기우유' 첫 무대



배국남닷컴이 15일 그룹 크레용팝 유닛 딸기우유를 만났다. 크레용팝 쌍둥이 멤버 웨이, 초아로 구성된 딸기우유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일지아트홀에서 데뷔 미니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갖고 첫 무대를 꾸몄다. 웨이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닛이기에 부담은 있지만 재미있게 준비했다"며 "크레용팝에서 볼 수 없었던 발라드나 자작곡을 유닛에 선보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아는 "밥 먹고 후식으로 우유를 먹을 만큼 우유를 좋아한다"며 "여러가지 우유 중 딸기맛 우유가 유닛 콘셉트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딸기우유라고 그룹명을 지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웨이의 자작곡 '알려주세요'를 첫 곡으로 선보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말하는 듯한 창법으로 함께한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웨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이 길이 맞는지 알려 달라'고 하늘에 대고 기도했다"며 "그런 간절함을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타이틀곡은 'OK(오케이)'로, 상상 속으로만 꿈꾸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 느끼는 감정을 귀여운 소녀 감성으로 표현해 냈다. 딸기모양의 소품을 이용한 의상과 깜찍하고 발랄한 안무로 보는 즐거움도 더했다. 초아는 "크레용팝이 악동스러운 면이 있다면 딸기우유는 귀여움이 있다"고 매력포인트를 언급했다. 이어 "크레용팝 색깔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쌍둥이 유닛으로 나왔을 때 우리와 가장 잘 어울리고 장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검색

데스크 칼럼

원희룡 지사의 정치과잉



이 은 호
경제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원희룡 제주지사는 필자 같은 386에겐 작지만, 진한 희망과 동의어다.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수석 입학, 사법고시 수석 합격 등 대한민국 3대 수석이란 화려한 이력을 업고 자신의 영달에 '무한 함몰'할 수도 있었지만, 대학 땐 오롯이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정치인이 된 후엔 엄청난 권력을 향해 바른 소리 세례를 흠뻑 퍼부으며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386 감성을 꿋꿋이 고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생각은 철저히 부서졌다.

이쯤 되면 아마 독자들도 도대체 뭔 일 때문에 이 자가 이렇게 열 받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필자의 내면을 살짝 들춰내 고백한다면 그 분노는 바로 행정가로서 원 지사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 제주시장 임명 과정에서 '삼수'를 자초하는 시행착오를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에 대해 급제동을 거는 방식과 태도에서까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제주를 지키려는 원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다. 지금 제주는 가히 패닉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중국 자본과 중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제주 전체가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는 보도는 육지에 사는 필자가 볼 때도 우려할 만하다. 중국 자본과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특히 카지노를 앞세운 중국 거대 자본이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 사회를 초토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이 간다.

그런 점에서 중국 자본에 대해 제주의 미래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옥석을 가려야 하고, 국제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 그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자는 그의 생각 역시 박수를 보낼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다. 원 지사는 중국자본 전체를 투기자본처럼 몰아가는 우를 범했다. 지금 중국 투자자로서는 마치 일렬종대로 세워져서 원 지사 앞에서 검열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도 하다. 중국 언론과 중국 정부도 이 때문에, 특히 드림타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듯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드림타워는 2007년 7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확정·발표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기초해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가진 랜드마크'로 구상된 건물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화 압력과 국제자유도시로 개방을 앞둔 제주도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덕분에 높이는 218m로 결정됐다. 이후 2009년 5월 4일 획득한 건축허가 기준도 높이 218m, 용적률 984%, 연면적 31만3479㎡였다.

그런데 원 지사는 5년 전 건축 허가 사항인 드림타워의 높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대폭 낮추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자는 높이를 낮출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이 경우 녹지그룹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원 지사와 사업자가 가히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행정가는 원래 상황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걸 배배 꼬이게 했으니 그는 행정가로서 '0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더구나 그는 제주를 찾은 투자자와의 약속을 파기했다.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5년 전 건축허가가 난 사항까지 입맛대로 변경한다면 과연 어떤 투자자가 제주를 찾을 수 있을까. 당장 녹지그룹이 떠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몫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우리처럼 정치가 넘쳐나는 나라는 없다. 정치가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는 제쳐두고 걸핏하면 머리띠를 매고 메가폰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집단행동과 대중 정서를 선동하는 게 우리 정치다. 지금 원 지사가 보여주는 태도 또한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의 신뢰성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행정도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원 지사다. 행정상 특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한 감사를 통해 바로잡으면 되고 범법 행위가 있다면 사법체계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정치가 풀어줄 문제가 아니다.

원 지사는 이제 행정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도, 필자도 두 눈 부릅뜨고 그의 변화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leeeunho7

객석

울진 금강소나무숲에서의 힐링



윤 원 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강부 시니어매니저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 숲길을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한다. 익히 명성을 들은 터라 나와 동료 일행은 이곳으로 힐링 여행을 떠났다. 2009년 산림청이 국비로 조성한 1호 숲길이자 생태보호지역으로, 일일 탐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전 9시 세 가지 코스 중 1구간을 선택한 지긋한 연세에 당차 보이는 마을 어르신의 안내를 받으며 숲길을 걸었다. 산에 오르기 전 지나간 마을 앞길에는 담장 밖으로 탐스럽게 늘어진 단감에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산속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내 솔향기가 코끝으로 가득 밀려왔다.

두천1리에서 소광2리까지 이어지는 13.5㎞ 길이의 1구간은 얼마 전 비가 내려서 젖은 낙엽이 푹신푹신해 걷기에 딱 좋았다. 계곡은 수량이 풍부했고 군데군데 앙증맞은 폭포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그러다 마주친 옹달샘 물은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투명한지 눈이 시원하고 영혼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내 안의 못된 생각들도 이 계곡물 따라 멀리멀리 흘려보내 달라고 가만히 기도했다.

3시간 정도 오르니 조금 평평한 곳이 나왔다. 여기서 마을사람들이 준비한 산채비빔밥을 게눈 감추듯 맛있게 한 그릇 비우고 다시 숲길로 향했다. 오후 3시 반쯤 되어 목적지인 소광2리에 도착했다. 출발한 지 6시간 반 정도가 지나 있었지만 가다 쉬다 숲해설가 어르신의 설명을 들은 시간을 빼면 실제 걸은 거리는 4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내려와서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정자에 올라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켰다. 구름 한 조각 여유롭게 흘러가는 파란 하늘을 보니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기자의 눈

中企 지원,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김 정 유
미래산업부/thec98@

"매번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거론됩니다.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인데,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한 정부기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이 관계자는 최근에도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몸소 느끼고 왔다고 한다. 주로 형평성 지적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풍족한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터라, 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

일리있는 얘기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선 지방의 알짜 기업들을 찾아내 맞춤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들도 지방 이전을 하는 마당에, 수도권에 편중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에 정부도 균형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중기청이 발표한 '프리 월드클래스'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 같은 형평성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키워내려면 역량있는 강소기업들에게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형평성만 부르짖으며 양적인 지원책만 추진한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딜레마다.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섣불리 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담아 듣는 것,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간격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찌라시, 삐끼 그리고 삐라의 추억



초등학교를 다니던 1970~80년대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동네 산으로 전단(傳單·삐라)을 찾으러 싸돌아다녔다. 주운 전단을 학교에 가져가면 공책, 연필, 크레파스 등을 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담임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붉은색 그림과 글씨 정도는 아직도 머릿속에 아스라이 남아 있다. 학용품이 귀하던 시절 강원도 산골 어린 초등학생에게 불온 선전물 '삐라'는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 나이 지긋한 세대의 추억 속 삐라가 요즘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탈북자 등 우익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부상했다. 남북 간 총격전으로까지 치닫으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남북관계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세계 최초의 삐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도망친 노예를 잡아 달라며 거리에 뿌린 문서로, 현재 대영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한반도에 삐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해방 직후다. 당시 좌우의 첨예한 이념 대립 속에 삐라는 세력 확산의 최대 도구인 동시에 정보 공유·소통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후 한국전쟁 기간에도 삐라는 예외없이 등장했다. 심리전을 중시한 유엔군은 엄청난 양의 삐라를 공산군 진영에 뿌리며 귀순이나 항복을 권유했다. 이후 치열하게 이어진 남북 간 삐라 살포전은 2004년 남북회담에서 상호 비방을 중지키로 합의하면서 종료됐다. 그리고 삐라는 귀중한 사료로 강원도 고성과 정선의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상대방의 속을 긁어 불쾌하게 만드는 삐라는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할 것이다.

'삐라'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전단(傳單)'의 잘못된 표현이며, 전단의 북한어로 올라 있다. 전단·광고·포스터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빌(bill)'을 일본인이 그들의 음운체계상 '비라(びら)'로 읽은 것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삐라'가 됐다. 1995년 당시 문화체육부가 광복 50돌을 기념해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자료'를 고시하면서 이 말을 '전단'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표현이라며 다시 '알림 쪽지'로 순화해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비슷한 의미의 '찌라시'도 일본어 '散(ち)らし'를 그대로 읽은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상 '지라시'가 맞다. 이 또한 1995년 '선전지', '낱장 광고'로 순화했다.

이에 비해 '술집이나 음식점에 고용돼 손님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삐끼'는 단어로 인정, 사전에 올랐다. 이 역시 일본어 '히키(引き,ひき)'에서 온 말이다. 그러나 영어에 일본색이 덧칠해져 왜곡된 형태로 굳어진 삐라와 달리 삐끼는 본래 말 '히키'에서 파생해 새로운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봐 올림말로 다뤘다.

최근 삐라가 뉴스의 초점이 되면서 단어 사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팽팽하다. 규정을 바탕으로 버릴 건 버려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언중의 공감을 얻어 깊이 뿌리내린 말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열기자인 나 역시 말 속에 녹아 있는 역사성을 배제한 채 국어연구원의 권장사항만을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 삐라는 삐라라고 불러야 의미가 정확히 전해지며 글맛이 제대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언중의 공감을 잃은 말은 의미가 없다. 우리말 다듬기의 방향이 명확히 보이는 대목이다.

편집부 교열기자 jsjysh@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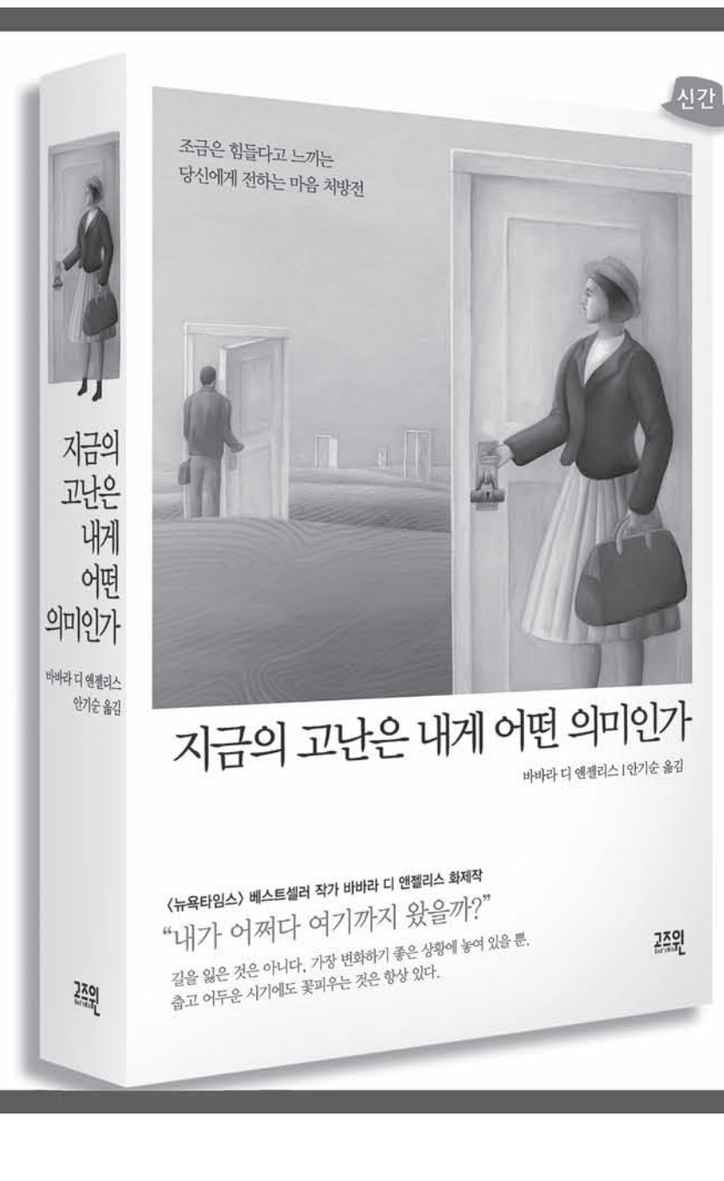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조금은 힘들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전하는 마음 처방전

지금의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 안기순 옮김 | 412쪽 | 14,500원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삶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멈춰 서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재탄생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뛰어넘는 지혜와 획기적인 영감을 제공한다. – 반스앤노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 디 앤젤리스 화제작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가장 변화하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뿐. 춥고 어두운 시기에도 꽃피우는 것은 항상 있다.

당신을 닮은 좋은책 고즈윈 TEL.02)325-5676

"다문화가족과 함께 만든 달콤한 뮤지컬"

'꿈꾸는 마술붓' 공연 신혜원 문화나눔초콜릿 대표

결혼이주여성들 위해 방송인들 모여 재능 기부

中 구전동화 각색 공감대 형성… 소외계층 아울러



신혜원 문화나눔초콜릿 대표. 연합뉴스

방송사 성우들과 방송작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문화나눔초콜릿'이 다문화가족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꿈꾸는 마술붓'은 중국 구전동화를 각색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꾸민 가족 뮤지컬이다.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가족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 만든 이 뮤지컬은 오는 12월 7일 오후 5시 대학로 엘리홀에서 공연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참여해 무대에 직접 오르는 공연이어서 눈길을 끈다.

신혜원 문화나눔초콜릿 대표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국의 구전동화를 가족 뮤지컬로 만들어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한국말로 각색을 하니까 우리 문화를 알리기에도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고 뮤지컬 '꿈꾸는 마술붓'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활동은 6년 남짓이지만, 이 단체의 역사는 1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KBS에서 일하던 신혜원씨와 최영미 아나운서가 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며 우연히 노숙 여성들의 현실을 알게 되고 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모임이 시작됐다.

그렇게 시작된 자선·기부 활동에 주변의 작가, 성우, 아나운서 등 방송인들이 모이면서 활동의 폭은 더 넓어졌다. 콘서트에는 최백호, 노영심, 김도향, 이루, JK김동욱 등 가수들이 무료로 출연해줬고, 이금희 아나운서와 배우 채시라, 개그맨 김기리, 서태훈, 김준호 등이 진행자로 재능을 기부해줬다.

이어 2009년부터는 방송작가 도상란, 서재순씨 등이 극본을 쓰고 성우 김승태, 정현경씨 등이 연기를 맡아 연극·뮤지컬을 창작해 무료 공연을 시작했다. 이들을 비롯해 방송인 30여명이 고정적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이따금씩 후원해주는 이들까지 합치면 200여명이 함께하고 있다.

기부·나눔의 폭도 점차 넓어져 10년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기업 후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연 '꿈꾸는 마술붓'은 GKL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덕분에 다문화가족을 직접 참여시킬 수 있었다.

신 대표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여성들이 많은데, 어쩌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여성 노숙인들보다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공연마다 다문화가정을 초대했고, 이제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취임

"보은인사라면 거절했을 것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16일 오전 김성주 제2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지난 16일 취임식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은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보은인사였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과 봉사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이날 서울 중구 소파로 소재 본사 4층 강당에서 제28대 김성주 총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총재는 "제 어머니께서 팔십 평생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했다. 저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살겠다"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임 사실이 공개된 이후 '보은인사' 논란부터 시작해 전문성, 자격 시비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공을 세운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적십자사 총재 자리를 받게 됐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적십자사 회비를 5년간 한차례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총재는 성주그룹 회장과 MCM홀딩스 회장으로 주로 패션사업을 펼쳐왔다. 적십자사가 맡은 사회봉사 및 구호사업, 남북교류 등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일만해와 전문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측에서는 김성주 총재의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취임식에서 적십자사가 창립 11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비전 110'을 선포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총재는 "글로벌 봉사단체로서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각국 적십자사와 국제공조를 통해 활발한 대북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부미 기자 boomi@

'올해의 광고인상'에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올해의 광고인상으로 임대기〈사진〉 제일기획 사장이 선정됐다. 한국광고주협회는 '2014 한국광고주대회 KAA Awards'의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광고인상' 수상자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선정했다.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광고인상'은 광고주의 권익 보호와 광고의 자유 신장, 그리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협회측은 선정 배경과 관련해 임 사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겸 한국광고주협회 자율심의위원장을 지내면서 광고심의규정 개선에 앞장서는 등 광고주의 권익 보호와 국내 광고시장의 선진화에 크게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KAA Awards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광고인상'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3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되는 '2014 한국광고주대회 KAA Awards 시상식'에서 열린다.

'분쉬의학상' 본상에 김효수 서울의대 교수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김효수〈사진〉 서울의대 교수가 '제24회 분쉬의학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젊은 의학자상 '기초부문'에 윤승용 울산의대 조교수가, '임상부문'에 김찬 연세의대 임상강사가 선정됐다. 본상 1명에게는 5000만원의 상금이, 기초계와 임상계 등 2명의 젊은 의학자상에는 각각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효수 교수는 '사이토카인-줄기세포요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 장기간의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다. 이 요법은 세포간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이용해 골수의 줄기세포를 말초혈액으로 동원시킨 후 환자로부터 고통없이 세포를 채취해 심혈관 질환 치료에 응용하는 요법이다. 김 교수의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대한의학회 측 설명이다.

그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대사증후군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인효 기자 kangih@

'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내한

이달 28일 연세대 초청강연… 과거사 극복 문제·작품 세계 등 연설



영화 '더 리더(The Reader)'의 원작 '책 읽어주는 남자'를 쓴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오는 28일(한국시간) 한국 독자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베른하르트 슐링크 페이스북 캡처

영화 '더 리더(The Reader)'의 원작 '책 읽어주는 남자'를 쓴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오는 28일(한국시간) 한국 독자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제4회 박경리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그는 시상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오는 28일 정오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다.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은 16일 "슐링크가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서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극복 문제 그리고 자신의 작품 세계 등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독일 빌레펠트에서 태어난 슐링크는 1987년 법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추리소설 '젤프의 법'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슐링크 작품의 주요 주제는 독일인의 과거사 반성으로 그는 '책 읽어주는 남자' '귀향' 등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독자에게 던져왔다.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은 "이번 강연회는 과거사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국제적, 내부적인 갈등의 단초로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LG이노텍 임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16일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어린양의 집' 장애인들과 시설 인근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이노텍

LG이노텍 '행복한 봉사'

협력사와 장애인시설 환경 개선

LG이노텍은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16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어린양의 집'에서 '행복 나들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협력사 정기총회 행사 중 하나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자는 협력사 대표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협력사 대표 30여명과 LG이노텍 임직원 20여명이 참가해 잡초 제거, 실내 청소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참가자들은 거동이 어려워 혼자 외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이 '행복한 나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축해가며 어린양의 집 인근을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LG이노텍과 협력사들은 LED TV 2대와 청소기, 생활용품 등을 기증했다. TV는 시청각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지난 2010년부터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금융·경영·교육·소통 등 5개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협력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CSR 클리닉'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 여성사 토막상식 ⑧여권통문

"여성도 국가의 구성원" 여권운동의 시작



여권통문이 실린 황성신문.

1898년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서인 '여권통문'이 발표됐다. 그 기사는 9월 8일 황성신문과 9월 9일 독립신문에 실렸다.

1898년 9월 여학교 설립을 위한 단체인 찬양회가 개화 여성들에 의해 결성됐다. 찬양회의 설립 취지문인 '여권통문'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주장했다. 여성교육을 위해 관립여학교 설립을 주장했다. 여성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찬양회 조직을 주도한 여성들은 주로 북촌에 사는 양반층 부인들이었으나 회원 자격은 그들이 설립하는 순성 여학교를 후원하는 회비를 내는 모든 신분 계층의 부인들, 그리고 남성에게도 개방됐다. '여권통문' 발표 당시 300여명의 찬동자는 발표 후 400~500명으로 증가했다. '여권통문'은 천부인권사상을 배경으로 여성들이 문명, 개화 정치를 수행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여권운동의 시작이었다.

자료제공 (사)역사·여성·미래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7호점

제주 서귀포시 '밥짓는 풍경' 식당



호텔신라는 '맛있는 제주만들기'의 7호점으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의 '밥짓는 풍경' 식당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7호점으로 선정된 '밥짓는 풍경'은 고정이(60)씨가 혼자 운영 중인 66㎡ 규모의 동네식당이다. 호텔신라는 식당운영자 면담과 주변상권 조사로 7호점만의 음식메뉴를 개발하고, 식당 환경을 대폭 개선해 오는 11월 12일쯤 재개장할 예정이다.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방송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는 관광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DJ 측근' 조풍언씨 별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치른 재미사업가 조풍언(74)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팔로스 버디스 자택에서 지병으로 14일(현지시간)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 조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줄곧 투병생활을 해왔다.

전남 목포 출신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조씨는 경기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73년 무역회사 '기흥물산'을 설립해 미국 군수업체 ITT사에 장비납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무개중개업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 기흥물산을 매각하고 미국으로 이민가 주류 도소매업체 운영과 투자회사 임원 등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

특히 1999년 7월 김전 대통령의 일산 자택을 조씨가 산 사실이 공개되면 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 후견인 역할로 주목받았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으로부터 각종 로비·특혜 시비의 주요 인물로 언급되기도 했다.

2008년 '조풍언 게이트'로 불렸던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에 연루된 조씨는 6개월간 실형을 살기도 했으나 2010년 12월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2011년엔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조씨의 장례는 17일 팔로스 버디스 프레스트론에서 진행된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인사

◆외교부 ◇국장급 승진 △국제기구국장 유대종 △외교정보관리관 오승용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최호상

◆국민일보 △편집국장 박현동 △사업국장 김용백 △논설위원 김명호

부음

▲김용배(팬커뮤니케이션 코리아 대표)·세정씨 모친상, 황보 윤(동부화재 상무)씨 장모상 = 16일 오후 2시 54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16일), 30호실(17~18일), 발인 18일 오전 6시, 02- 3010-2000

▲라윤수(창원일보 이사·고려B&P산업㈜ 대표이사)씨 모친상 = 16일 오전 9시, 경남 김해시 지내동 김해전문장례식장 50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55-331-4444

▲윤진현(전 K2 군무원)·태현(농업)·재현(전 K2 군무원)·후현(자영업)·준현(경북 칠곡군청 기획감사실장)·성현(안양사 대표)·영옥(주부)씨 모친상, 이은우씨 장모상 = 16일 오전 8시 30분, 대구 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VIP2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53-200-2500

▲김기석(충북 진천중학교 운영위원장)씨 장모상 = 16일 오후 2시 40분, 음성군 금왕농협 연합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43-883-4444

▲박상률(옴니버스 이사)·선이(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인이(월간 산 근무)·미선(조달청 전 주무관)씨 부친상, 박동우(중앙대 교수)·서봉학(세무사)씨 장인상 = 16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2-3410-6917

▲심용식(덕운서예학원 원장)·용훈(안동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씨 부친상, 이상진(포스코 캠텍 부장)·이재혁(이재혁복싱체육관 관장)씨 장인상 = 16일 오전 5시, 안동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54-840-0030



야하다고 '삐'…
잔인하다고 '삐'…
그런데 어렵다고 '삐'?…

천불 나는 '청불'



사복 입은 3~4명의 중고생들이 극장에서 교사의 손에 붙들려 나온다. 고개를 숙인 채 교사의 일장 훈시를 듣는다. 볼 수 없는 야한(?) 영화를 보려다 교사에게 걸린 것이다. 1970~80년대 시대를 담은 드라마 속 한 장면이다. 시대가 흘러 단속의 모습은 변했지만 극장에는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관람불가 영화가 있다. 요즘 관객과 만나고 있는 '마담 뺑덕', '타짜-신의 손', '맨홀' 상영관에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영화 안내판에 청소년 관람불가로 명기됐기 때문이다.

칸, 베를린 영화제 등 세계 영화제에서 단골로 후보에 오르며 각종 상을 수상하는 김기덕, 홍상수 감독의 신작 영화 '일대일'과 '자유의 언덕'이 올 베니스 영화제에 소개돼 관심을 모았지만 우리 청소년 관객을 볼 수 없었다. 청소년 관람불가(청불)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김기덕 감독의 '일대일'에 대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및 주제 부분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고, '자유의 언덕'에 대해서는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주제의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화"라며 청불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요즘 극장가에는 '일대일' 같은 청불영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 등급 판정을 받은 영화 현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영등위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등급별 영화 편수를 살펴보면 한국영화는 전체 관람가 32편, 12세 이상 27편, 15세 이상 44편, 청소년 관람불가 107편, 제한상영가 8편으로 청불영화가 압도적으로 많다. 외국영화의 경우 청불영화 비중이 더욱 높다. 외국영화 중 전체 관람가 101편, 12세 이상 96편, 15세 이상 218편, 청소년 관람불가 320편, 제한상영가 14편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이처럼 봇물을 이루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표현의 자유를 발판으로 새로운 소재와 주제 그리고 실험적인 영상으로 영화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영화 창작자들의 의지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등급제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도적인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관객의 눈길을 잡아보려는 영화 제작진의 마케팅도 청불영화 봇물에 한몫하고 있다.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 특히 청소년 관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다. 이 때문에 영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1900년대부터 영화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청소년, 학부모, 종교단체에서 제기됐다. 우리의 경우 일제 강점기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1922)과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1926) 등에서 알 수 있듯 사전검열제였다. 해방 이후에도 검열 주체가 달라졌지만 영화 검열제는 1990년대까지 실시됐다. 1970년대 영화 검열을 통과한 영화에 대해 연소자 관람가, 국민학생 관람가, 연소자 관람불가 3등급 판정을 했으며 1980년대에는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 이상 관람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미성년자 관람불가 4등급으로 영화를 분류했다. 1996년 사전심의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뒤 검열이 사라지고 1997년 상영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몇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의 등급제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영화 등급 판정은 어떻게 내릴까. 영등위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기준에 따라 등급심의를 신청한 영화에 대해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등급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불영화가 홍수를 이루면서 청불 등급 판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등급제가 관객의 볼권리를 침해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청불 등급 판정의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등급 판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영화의 창작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영등위 한 관계자는 청불영화가 최근 증가한 것은 부가시장을 겨냥한 성인물 제작과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청불영화 등급 판정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영화 제작진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 맥스무비가 2013년 영화예매 관객을 분석한 결과 10대 3.5%, 20대 24.2%, 30대 40.5%, 40대 24.9%, 50대 이상 6.9%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의 비율이 7.9배 성장했고, 10대가 6.3배, 40대가 4.2배, 30대가 1.5배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10대 관객이 크게 느는데다 가족과 함께 극장을 찾는 10대 관객이 급증해 청불영화 등급은 흥행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청불영화 중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단 한 편도 없다는 사실에서도 청불 등급 판정이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배국남 기자 knbae@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사진 영화 '19곰 테드'

Cover Story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최근 개봉한 '마담 뺑덕'·'타짜'·'맨홀'부터
홍상수 '일대일'·김기덕 '자유의 언덕'까지
올해 1~8월 개봉 218개중 107편이 '19禁'
대중·예술영화 가릴 것 없이 '관람의 벽'
청소년 보호 vs 표현자유… 끝없는 논란

커버스토리 16·17면

‘야하면 흥행? 아니지~’ 올해 386편 작품성으로 승부

2014 극장가 ‘19禁’ 전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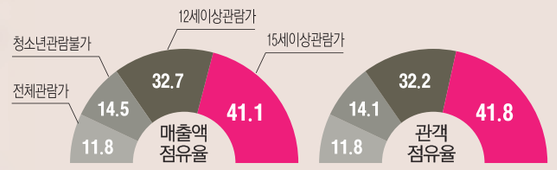
과거 부정적 이미지의 온상이었던 ‘19금(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퇴폐적 내용, 자극적 소재로 구성되며 일부 관객에게만 어필했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들이 작품성과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며 자신들만의 흥행 공식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1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친구’가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지 10년이 넘은 지금,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는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지 않고 ‘주류’로 떠올랐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2014년 현황

순위	등급	개봉편수	매출액	관객수
1	15세이상관람가	224	513,856,200,392	67,324,339
2	12세이상관람가	106	408,936,713,063	51,832,800
3	청소년관람불가	386	181,222,870,692	22,725,657
4	전체관람가	115	147,559,020,431	19,003,088
5	15세관람가	2	1,450,000	882
	합계	833	1,251,576,254,598	160,946,766

등급별 매출 · 관객 점유율 (단위: %)



‘타짜2’ 추석 최단기간 100만 관객
‘루시’ ‘마담 뺑덕’ 등 흥행바통 이어
탄탄한 스토리…평단 호평 끌어내
등급 낮추려 ‘센’장면 편집 이제 옛일

극장가 성수기로 불리는 추석 연휴 관객들은 19금 영화에 열광했다.

지난달 3일 개봉한 영화 ‘타짜-신의 손’은 개봉과 동시에 예매율,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했고, 누적 관객수 397만명으로 올해 한국 영화 중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타짜-신의 손’은 개봉 7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였고, 하루 40만명을 불러모으며 올해 개봉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최다 일일 관객수를 기록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임성규 팀장은 “‘타짜-신의 손’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국내외 화제작들이 포진한 추석 극장가에서 가장 먼저 100만 관객을 동원, 추석 대표 오락영화의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타짜-신의 손’에 이어 최민식, 스칼렛 요한슨의 ‘루시’가 쌍끌이 흥행을 주도했다. ‘루시’ 역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었지만 197만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7월 침체기에 빠졌던 한국 영화계에 흥행 신호탄을 쏘아올린 정우성 주연의 영화 ‘신의 한 수’, 봉준호 감독이 제작에 나서 8월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해무’, ‘트렌센던스’, ‘역린’ 등 대작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인간중독’, 10월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으로 꼽힌 ‘마담 뺑덕’ 등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들이 흥행은 물론 평단의 호평을 이끌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16일 현재까지 개봉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총 386편으로 224편의 15세이상 관람가 영화, 106편의 12세이상 관람가 영화의 수를 압도한다. 매출액 규모에 있어서도 1812억원을 기록하며 점유율 14.5%를 장악하고 있다.

CJ영화투자팀 이창현 팀장은 “한때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15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객수 증대 등 영화 시장의 확장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에 경쟁력을 불어넣어주며 다양성 확보에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말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가 단순히 야하기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작품성, 흥행성을 확보한 양질의 영화가 19금 영화시장에도 반영되면서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청불영화의 트렌드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인 터 뷰 ‘타짜-신의 손’ 배우 신세경

“옷 벗고 고스톱 치기… 즐거운 분위기속 촬영”



노출연기 부담 촬영내내 굶어

배우 신세경이 화끈하게 벗었다. 신세경은 지난달 3일 개봉, 397만명(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타짜-신의 손’에서 노출 연기로 치명적 섹시미를 발휘, 청순 여배우의 이미지를 벗고 ‘19금’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신세경은 ‘타짜-신의 손’의 노출 연기에 대해 “부담감이 없었던 건 아니다. 대신에 열심히 노력했다”며 “노출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많이 굶주렸다. 촬영 중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신세경의 노출신은 극중 ‘벗고 치는 장면’에서 나온다. 그녀는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다. 그때 귀여운 가운을 의상팀에서 준비해줘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고스톱 치고 친목했다”고 말했다.

신세경은 극중 대길(최승현)의 첫사랑 미나 역을 맡아 당당하고 화끈만 매력을 과시한다. 노출 연기만큼 관객의 시선을 끌었던 장면은 신세경의 화투 치는 장면이었다. 이에 그녀는 “화투의 재미를 알았다. 정말 패가 잘 붙고 돈도 잘 땄다. 사실 영화 촬영이 끝나고도 조금 쳤다. 개인적으로 고스톱을 좋아한다. 지금은 일부러 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818만 관객동원 흥행 1위… ‘친구’ 아이가!

‘청불’영화 역대 흥행순위는

아저씨 628만명·추격자 507만명 뒤이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한국 영화 중 흥행에 성공한 작품 중 대다수는 화제작의 향연이지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청불영화는 단 한 편도 없는 상황이다. ‘친구’, ‘타짜’, ‘아저씨’, ‘추격자’ 등 19금 영화를 넘어 작품성, 흥행성으로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이 즐비하다.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작품은 2001년 개봉한 유오성, 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다. ‘친구’는 누적 관객수 818만명(이하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동원하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 기록은 778만명의 ‘트랜스포머3’(2011), 750만 관객을 동원한 ‘미션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콜’(2011) 등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흥행작보다 앞선 기록으로 19금 영화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2위는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주연의 ‘타짜’(2006)다. ‘타짜’는 684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친구’와 ‘타짜’ 열풍은 지난해와 올해 후속작 탄생으로 이어졌고, ‘친구2’는 277만명, ‘타짜-신의 손’은 397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성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원빈의 ‘아저씨’(2010, 628만) 김윤석·하정우 주연의 ‘추격자’(2008, 507만), 하정우·최민식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471만), ‘신세계’(2013, 468만), ‘도가니’(2011, 466만) 등 지금도 영화계에서 걸작으로 회자되는 다수의 작품들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표를 받고 흥행에 성공하거나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친구’와 ‘친구2’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은 “데이터로 보면 818만명의 관객이 들었지만 마니아층 300만명이 3~4번씩 본 것 같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힘은 진한 흡입력이다. ‘친구2’를 하면서도 ‘친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흥행순위

순위	작품(개봉년도)	관객수	순위	작품(개봉년도)	관객수
1	친구(2001)	818만	6	신세계(2013)	468만
2	타짜(2006)	684만	7	도가니(2011)	466만
3	아저씨(2010)	628만	8	색즉시공(2002)	408만
4	추격자(2008)	507만	9	타짜-신의 손(2014)	397만
5	범죄와의 전쟁(2012)	471만	10	쌍화점(2008)	377만



‘애들이 흉내? 안되지~’ 270회·1155건 깐깐한 필터링

〈2013년 영화 등급분류 회의 횟수·작품수〉

영화 등급 어떻게 매기나

연간 270회. 1155건. 이는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소위원회에서 2013년 한해 동안 영화 등급 분류를 위한 회의 횟수와 작품 수다. 영화는 대중의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데다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화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도 1900년대 영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넘쳐나면서 기독교 등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급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역시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영화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화 등급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



영상물등급위원회 7명 위원 구성

주제·선정성·모방성 등 고려해 평가

전체·15세관람가 등 5개 등급 배정

연령 안돼도 부모랑 같이 보면 OK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해 유해 영상물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현 형태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에 7인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소위원회 위원은 영화에 대해 7가지 내용 정보로 등급을 매긴다.

우선 해당 연령층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수용 정도에 따라 주제를 고려한다. 두 번째는 선정성이다. 신체의 노출 정도, 애무, 정사 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세 번째는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손괴, 억압, 고통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 정도를 담는 폭력성을 본다. 네 번째는 대사에 담긴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를 면밀히 고려한다. 이 외에도 공포, 약물, 모방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같은 기준을 거친 한국영화는 총 5가지 중 하나의 등급을 배정받는다.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다면 관람이 가능하다. 다음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등급이다. 아울러 선정성 등의 표현이 과도해 국민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받는다.

이를 총괄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에 비해 떨어지는 접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ORs)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영화등급제를 영화 초창기부터 실시한 미국의 경우 영화인협회, 영화관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는 영화분류 및 등급위원회가 영화 심의를 맡는다.

위원회는 영화 표현의 노출 정도, 성 묘사, 폭력, 대사, 약물 사용 등을 파악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G(모든 연령), PG(연령 제한이 없으나 10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영화), PG-13(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부적절하므로 부모의 주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영화), R(17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있어야 관람이 가능한 영화), NC-17(17세 미만은 관람하지 못하는 영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에선 일본영화윤리위원회가 영화 등급 판정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관객의 윤리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영화를 억제하며, 영화산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영화의 예술성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은 일반 영화(제한 없음), 제한부(R, 15세) 일반 영화, 성인 영화 등 셋으로 나뉘며 영화윤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수료증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도 상영할 수 없다.

이 밖에 영국 영화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U, 보호자 재량에 맡기는 A, 14세 이하 관람불가 AA, 18세 이하 관람불가 X로 구분돼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 터 뷰 ‘영화등급위원회’ 지성훈 위원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 늘 고민”

제한상영가 전용관 국내 도입 필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과 표현의 자유, 항상 고민하지요.” 영화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영화 소위원회 지성훈 위원은 5개월째 하루에 두 편씩 영화 등급 분류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 MBC ‘별이 빛나는 밤에’의 DJ로서 청취자와 만나온 그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 등급 심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저는 1표이긴 하지만, 그 1표로 인해 때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감을 스스로도 항상 느낍답니다.” 자발적인 응모를 통해 선발 과정을 거쳐 교육, 법조 등 각계 분야로 안배돼 위촉된 7인의 영등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처럼 각자의 사명으로 임한다.



“영등위의 근간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정서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영상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적의 정당성으로 보면 당연히 존재 가치가 있는 집단이고요. 이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에 수단으로서도 적정성이 있는 집단이지요.” 한편 지성훈 위원은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우려도 인식했다.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 가능한 제한 상영가 등급이 있는데 사실 국내엔 제한 상영가 전용관은 따로 없습니다. 곧 상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영화로서 작품 가치가 없는 것이죠. 때론 제한 상영가 등급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양분된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근친 성관계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딱지

등급제 논란 일으킨 영화는

33컷 3분가량 가위질 끝에 ‘청불’ 판정

영화등급제를 둘러싼 제작자 측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줄다리기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제작자와 이를 심의해야 하는 영등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은 지난해 9월 가까스로 개봉한 ‘뫼비우스’다. 애초 이 영화는 2013 베니스 영화제가 끝난 후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등위가 2차례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극중 아들과 어머니의 정사 장면이 문제였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국내 실정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과 같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논란이 된 33컷, 3분가량을 편집해 수차례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 영화는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극장에 걸리며 약 3만5000명의 관객을 모았다.

강우석 감독의 ‘전설의 주먹’도 등급제 논란에 불을 지핀 영화 가운데 하나다. 주제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폭력을 휘두르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건전한 가족영화에 가깝다. 그러나 학교 폭력이 나온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영등위의 등급 판정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영화 등급제 논의에 불을 지핀 영화 ‘뫼비우스’의 포스터. 사진제공 영화제작사 NEW

수입 영화가 등급제 논란에 불을 지핀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여자 색정광’을 뜻하는 제목으로 화제를 모은 ‘님포매니악 볼륨1’이 그 주인공이다. 영등위는 여주인공의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에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수입사는 선정적 장면이 섹스를 바흐의 작곡법에 비유하는 유희와 육체적 사랑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라며 영등위의 판정에 불복했다. 몇 번의 심의 끝에 이 영화는 몇몇 장면을 블러 처리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개봉했다. 민병선 영화평론가협회 홍보이사는 “영화는 예술의 범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영등위는 주관적 잣대로 등급을 매긴다”며 “등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영화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매번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배국남이 만난 ★타

⑪ 배우 **최불암**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아버지 모습 보여줘야지…”

한낮의 햇볕이 이제 뜨거움이 아닌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가을의 중간이다. 그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한 스타를 만났다.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소리를 지른다. 환호다. 하지만 그 환호의 대상은 팬덤이 강한 아이돌 스타도 트렌드를 이끄는 톱스타도 아니다. 바로 국민 아버지로 불리는 최불암(74)이다.

“연기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직업이야. 이번 드라마(‘기분 좋은 날’)하면서 나 역시 아버지, 할아버지로서의 스스로를 돌아봤고 극중 캐릭터처럼 파킨슨병으로 육체가 마비되고 치매까지 걸린 아내를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며 보살필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나에게 여운이 많이 남는 드라마야.”

착한 드라마로 시청자의 가슴과 눈을 적신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의 종영 직후 만난 최불암은 여전히 드라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쉬움도 많다고 했다.

출생의 비밀 등 구태의연한 설정, 개연성 없는 우연한 사건 남발, 극단적 캐릭터의 홍수 등 막장 드라마로 비판받은 ‘왔다! 장보리’가 30~40%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연장방송을 한 반면 우리가 정작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의미와 가치들이 상실돼 가는 것을 두 가족을 통해 잔잔하게 보여준 ‘기분 좋은 날’은 시청률 4~8%를 보여 조기 종영했다.

“뭐, 가슴이 너무 아프지. 드라마는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주잖아. 좋은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도, 제작진도 그리고 시청자도 노력해야 할 것 같아.”

근래 들어 현실에서나 방송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자리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는 최불암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등 점차 어른의 자리,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청소년 등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에서 웃음거리 소재가 아닌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롤모델로서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TV 밖에서도 최불암은 우리 사회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일을 오랫동안 해 왔고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로캠프’을 열었다. “우리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것이다.”

역시 최불암은 TV 속에서나 밖에서 어른이다. ‘국민배우’라는 단어조차 그를 다 형용하지 못할 만큼 50여년 동안 최불암은 대중에게 연기자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다. 하루에도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지는 상황에서 최불암은 50여년간 한결같이 빛을 발하는 거성(巨星)이었다. 그가 발산하는 연기자로서의 빛을 보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은 용기를 얻고, 좌절에 빠진 사람은 위안을 받으며, 절망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한다. 이 때문에 최불암은 단순한 연기자가 아닌 삶의 좌표 구실을 하고 있다.

“중앙고 2학년 때부터 연극 무대에 오르며 연기를 했으니 연기자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구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내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했다면 나야 너무나 큰 보람이지”라며 특유의 너털웃음을 짓는다.

50여년을 연기했기에, 그것도 의미와 가치, 감동을 주는 연기자로 시청자와 관객의 곁을 지켰기에 최불암은 어린이에서부터 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양으로 읽힌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빼어난 할아버지 연기자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문화의 전령사로서, 중장년층에게는 우리들의 영원한 이상적 아버지상으로,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자신들의 삶을 잘 구현해주는 원로 연기자로 다가간다.

TV 연기자로 첫선을 보인 KBS ‘수양대군’(1967년), MBC 최초의 일일 드라마 ‘개구리 남편’(1969년) 등 50여년 동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연극에 출연한 최불암이 자신의 출연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꼽은 건 무엇일까.

“장기간 방송됐던 ‘전원일기’(1980~2002년)와 ‘수사반장’(1971~1989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지. 두 작품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두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따스함과 편안함을 주었지.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수사반장’과 ‘전원일기’를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

서울 대방동 이투데이 1층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어린이에서부터 중장년의 사람까지 최불암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거나 악수를 청하며 사진촬영을 요청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결 같이 반가운 표정이다. 최불암의 연기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지. 연기자로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 남은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지.”

여생도 연기자로서 치열하게 살겠다는 대한민국 연기자 최불암, 그가 연기자로 존재했던 만큼 한국 대중문화사는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해졌다. 앞으로 펼칠 그의 연기의 문양 역시 한국 드라마사에 남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연기자 최불암에게 여전히 기대를 갖는 이유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사진/장세영 기자 photothink@

연기자로 살아온지 50여년 ‘전원일기’ ‘수사반장’ 못잊어

‘착한 드라마’ 외면 가슴아파 제작진·시청자 모두 노력해야

어린이·청소년 위한 활동 열심 남은 삶도 연기자로 치열하게







스크린·안방극장 기대작 풍성

하반기 안방극장과 스크린에는 매력만점 기대작들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군도' '해적' '명량'으로 주도권을 잡은 한국영화는 하반기 흥행 판도를 굳히기 위한 공세에 나선다. 황정민, 하정우, 설경구, 이병헌, 전도연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하반기 기대작들이 힘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등을 집필한 송지나 작가가 드라마 '힐러'로 2년 만에 복귀를 확정 지은 가운데 김기호, 유용재, 이현주 작가 등 반가운 얼굴들이 총출동한다.



반갑다, 연기파 배우들

설경구·박해일 '나의 독재자'
황정민과 윤제균 감독의 만남
CJ엔터의 야심작 '국제시장'
이병헌·전도현에 김고은까지
사극열풍 이을 '협녀, 칼의 노래'
하정우 감독·주연 맡은 '허삼관'

가장 먼저 이목을 끄는 작품은 이달 개봉을 앞둔 영화 '나의 독재자'다. 북한 김일성 주석으로 변신한 설경구의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나의 독재자'는 대한민국 한복판, 자신을 김일성이라 굳게 믿는 남자(설경구)와 그런 아버지로 인해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린 아들(박해일)의 이야기를 그린다. 첫 남북정상회담 리허설을 위해 김일성의 대역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설정, 설경구, 박해일의 특별한 만남으로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너는 내운명' '신세계' 등으로 자타공인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한 황정민과 1000만 감독 윤제균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제시장'은 영화계 '큰손' CJ엔터테인먼트가 하반기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기대작이다. '국제시장'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 본 적 없는 덕수(황정민)를 통해 오직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우리들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과 전도연의 만남, '은교' 김고은의 가세로 하반기 기대작 중 최고 라인업이란 찬사를 얻고 있는 박흥식 감독의 '협녀, 칼의 기억'은 '군도' '해적' '명량'으로 이어진 흥행 열풍을 잇는 사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녀, 칼의 기억'은 혼돈의 고려 말, 천민으로 태어나 왕의 자리를 탐해 연인을 버렸던 야심가 유백(이병헌)과 협녀 월소(전도연), 그리고 월소와 꼭 닮은 여검객 홍이(김고은)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영화다.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 마켓에서 해외 바이어 및 배급사들을 대상으로 5분 프로모션 하이라이트 영상이 공개된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미주 주요 바이어들이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또 배우 하정우가 감독, 주연을 맡아 하지원과 호흡을 맞추는 '허삼관'은 세계적 소설가 위화(余華)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소설 '허삼관 매혈기'를 원작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1970년대 서울 강남을 배경으로 부동산 개발이 시작된 시기, 정치권력과 사회의 어두운 세력이 결탁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느와르 '강남 1970'도 유하 감독과 한류스타 이민호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부탁해, 베테랑 작가들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성한
일일극 '압구정 백야' 시작으로
송지나 2년 만에 신작 '힐러'
'너목들'로 호평받은 박혜련
방송사 기자 소재 '피노키오'
신예 이현주 '오만과 편견'도

올 하반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굴 드라마는 무엇일까. 화려하고 탄탄한 필력을 거침없이 자랑하는 베테랑 작가부터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으로 주목받는 신예 작가까지 방송사마다 라인업을 확정짓고 시청자 마음을 공략하고자 나섰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 불리는 일명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성한 작가는 지난 6일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통해 컴백했다. 해당 작품은 첫 회부터 파격적이었다. 승려복을 입은 박하나가 클럽에 등장해 스트립댄스를 추는 장면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또 다른 '임성한표' 막장의 서막을 알렸다.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카이스트' '대망' '태왕사신기' 등을 집필한 송지나 작가는 약 2년 만에 신작을 선보인다. KBS 새 월화 드라마 '힐러(연출 이정섭, 12월 방송)'는 메이저 방송사에 근무하는 스타 기자가 어느 날 과거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진실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다.



박혜련 작가는 지난해 복합 장르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호평받은 박혜련 작가는 진실을 좇는 방송사 사회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작 SBS '피노키오(연출 조수원, 11월 방송)'로 시청자를 만난다.

'롤러코스터' '푸른 거탑'을 집필했던 김기호 작가는 SBS 새 주말극 '모던파머(연출 오진석, 10월 18일 방송)'를 통해 미니시리즈를 선보인다. '모던파머'는 농촌으로 귀농하게 된 네 명의 록밴드 멤버들의 유기농처럼 맑고 청정한 꿈과 사랑, 우정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 나가는 휴먼 코미디 드라마다. 김기호 작가는 "마을 안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코미디라는 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용재 작가는 지난 2007년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데뷔한 이후 약 7년 만에 신작 tvN '라이어게임(연출 김홍선, 10월 20일 방송)'으로 두 번째 집필에 나선다. '라이어게임'은 카이타니 시노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돈 앞에 놓인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담은 극한 심리 추적극이다.

'학교 2013'을 집필한 이현주 작가는 MBC 새 월화극 '오만과 편견(연출 김진민, 10월 27일 방송)'을 선보인다. 그는 2008년 MBC 극본공모 당선 이후 KBS 단막극을 통해 섬세한 필력으로 인정받으며 기대주로 떠올랐다. '오만과 편견'은 돈 없고 힘 없고 죄 없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루저 검사들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인 터 뷰 '마담 뺑덕' 배우 이솜

"앳된 티 벗고 싶어 진한 베드신도 OK"

'순수와 욕망' 1인 2역
아직도 캐릭터 후유증



여배우 이솜(24)은 영화 '마담 뺑덕'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앞서 드라마, 영화는 물론 화보에서도 마냥 사랑스럽고 귀여운 소녀였던 이솜은 '마담 뺑덕'에서 순수한 사랑에 휘말린 처녀 덕이와 복수에 사로잡혀 욕망을 분출하는 세정까지 1인 2역을 소화했다.

이솜은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동안의 한정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 하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극중 학규 역 정우성과의 농도 짙은 베드신, 순수함부터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까지 '마담 뺑덕' 이솜은 여배우로서 다양한 매력을 과시했다. 특히 전라 노출 연기는 그간의 이솜을 지켜본 연예 관계자는 물론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그녀는 "베드신은 두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힘든 현장이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임필성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 모두 베드신은 극중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니 잘 찍어야 한다고 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등 베드신 안에 콕콕 쑤시는 대사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대역 정우성의 배려는 큰 힘이 됐다. 이솜은 "정우성 선배와 같이 연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촬영 때마다 자상하게 배려해줘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극중 덕이처럼 불같은 사랑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없다"고 수줍게 답한 이솜은 "덕이는 순간순간 사랑을 몰입해 하는 인물이다. 한없이 순수했던 친구가 사랑을 알고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 요염하고 팜므파탈적 부분도 있었고, 애증의 감정도 있다. 그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솜은 끝으로 "아직은 극중 덕이를 보내는 것이 먼저다. 덕이를 내보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좀 쉬면 나갈 것 같다. 여행을 가고 싶다"며 '마담 뺑덕' 덕이 캐릭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글/최두선·사진/노진환 기자 sun@



CJ O SHOPPING

CJ오쇼핑 단독 방송

10.17(금) / 오전 9:20



Firstlook® OUTDOOR

아웃도어의 첫번째 상식! 퍼스트룩 아웃도어

퍼스트룩 아웃도어는 CJ오쇼핑(080-000-8000 / www.CJmall.co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퍼스트룩 아웃도어 검색



삼성이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이로써 삼성은 다음달 4일부터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를 치른다. 사진은 15일 LG전 승리로 우승을 확정지은 삼성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 뉴시스

삼성 KS 4연패… 누가 제동 걸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19일부터

‘진격의 넥센’ 첫 PO 직행

삼성은 보름이상 휴식기

류중일 감독 “실전감각 유지”

LG·SK 막차 티켓 오늘 결정

한국 프로야구 가을야구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초미의 관심사다.

2011년부터 3년간 패권을 거머쥔 삼성은 4년 연속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며 한국시리즈에 직행했고, 넥센은 2위를 차지하며 창단 후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NC는 1군 합류 2년 만에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4위 LG 트윈스와 5위 SK 와이번스는 17일 경기 결과에 따라 준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가려지게 됐다. LG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면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LG가 패하고 SK가 승리한다면 SK가 마지막 남은 가을 야구 티켓을 극적으로 차지한다.

이로써 3위 NC와 정규시즌 4위팀(LG or SK)은 19일 경남 마산구장서 5전3선승제의 준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NC·정규시즌 4위팀의 승리팀은 27일부터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넥센과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를 펼친다. 이 경기의 승리팀은 11월 4일부터 대구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대망의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를 시작한다.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삼성은 느긋하게 가을야구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특급 마무리 오승환(32·한신 타이거즈)의 일본 진출로 시즌 전만 해도 약체로 분류됐던 삼성은 3회 연속 우승 맛을 본 팀답게 관록과 팀워크를 발휘하며 시즌 중반부터 1위를 굳혔다.

특히 삼성은 옆구리 부상으로 빠진 박석민(29)과 허리 부상을 입은 조동찬(31·이상 내야수), 심창민(21·투수) 등이 엔트리에 합류 예정이어서 더욱 탄탄한 전력으로 한국시리즈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류중일 감독은 “정규 시즌을 마치면 보름 이상 경기가 없다. 따라서 휴식과 훈련을 조화롭게 가져가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지켜보면서 상대 전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첫 포스트시즌 무대에 선 넥센은 준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 2승 3패로 밀려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뼈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넥센과 올해의 넥센은 다르다. 11년 만에 50홈런을 달성한 박병호를 비롯해 강정호(이상 29), 서건창(25) 등 시즌 막바지에도 꺼질 줄 모르는 불방망이는 넥센의 포스트시즌 전망을 환희 밝히고 있다.

염경엽 감독은 “지난해는 넥센다운 야구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시즌 막판까지 2위 싸움을 하면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분위기도 하락세에 있었다”며 아쉬웠던 기억을 더듬었다.

반면 NC는 일찌감치 시즌 3위를 확정지으며 느긋하게 포스트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시즌 막바지에는 1.5군 선수들을 투입하는 등 포스트시즌을 대비해 불펜을 운영했다. 비록 리그 3위지만 타선의 짜임새는 9구단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편 LG와 SK는 17일 한 장 남은 가을야구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LG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SK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넥센과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오상민 기자 golf5@

박철우 빠진 삼성화재, 그래도 우승후보?

프로배구 V리그 내일 개막

프로배구 V리그가 18일 오후 2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2014~2015 시즌의 막을 올린다. 여자부도 이날 KGC인삼공사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김상우 KBS N 해설위원, 이도희 SBS스포츠 해설위원으로부터 올 시즌 전망을 들어봤다.

◇남자배구—김상우 KBS N 해설위원

두드러지게 강하거나 약한 팀을 꼽기 어렵다. 4강은 대한항공,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그리고 한 자리를 두고 나머지 팀들이 다툴 것으로 본다. 다크호스는 OK저축은행이다.

대한항공은 김학민이 합류하면 선수층에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이다. 마이클의 활약도 기대된다. 삼성화재는 박철우가 군입대했지만 기본적인 전력이 탄탄해 초반만 잘 버틴다면 상위권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의 기량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이다. 우리카드는 작년에 비해 전력이 다소 약해졌다.

◇여자배구—이도희 SBS스포츠 해설위원

4강(IBK기업은행·현대건설·도로공사·흥국생명) 2중(인삼공사·GS칼텍스)이다. 그중 IBK기업은행이 가장 안정적이다. 김사니가 이효희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박정아, 김희진이 많이 성장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이 건재하고 외국인 선수들을 보강하며 블로킹의 높이가 높아졌다. 도로공사는 이번 FA에서 영입한 정대영, 이효희의 활약이 기대된다. 흥국생명은 어린 선수들이 작년 시즌을 거치면서 노련해졌다. GS칼텍스는 베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최성근 기자 sgchoi@

오상민의 스포츠 인물사 ‘바람의 아들’ 이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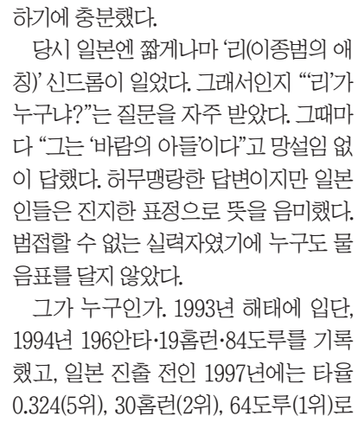
전무후무한 ‘30-60클럽’ 日 열도서도 ‘리’ 신드롬

1990년대 ‘해태의 수호신’

日 주니치 진출 ‘신바람야구’

평범한 안타 치고 2루 돌진

“안돼” 외치다 “대단하다”



1999년 여름, 일본 도쿄돔이 웅성거렸다. 주니치 드래건스와 홈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중견수 앞 평범한 안타를 친 후 아무렇지 않게 2루까지 돌진했다. 그의 무모한 플레이에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아! 다메(안돼)!” 경기장은 웅성거렸다. 그러나 그는 공보다 빨랐다. “세이프!” 2루심의 세이프 선언에 도쿄돔을 가득 메운 관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확인할 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스고~이(대단하다)! 하야~이(빠르다)!” 그는 1990년대 해태 타이거즈의 수호신 이종범이다.

이종범의 플레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바람야구다. 신명나는 우리 가락처럼 그의 플레이에는 흥이 넘친다. 늘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야구를 펼쳤고, 상식을 깬 야구로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항상 투혼으로 활활 불탔다. 이종범의 신바람 야구는 세계 최강 수비력의 일본 프로야구를 동네야구로 전락시켰다.

이종범의 투혼은 눈물겨운 시련을 이겨낸 산물이에 더욱 값지다. 1년 전인 1998년, 이종범은 해태 타이거즈를 떠나 일본 주니치 드래건스에 입단했다. 이종범의 주니치 합류는 신선한 바람이었다. 당시 ‘재미없는 야구’라는 꼬리표가 붙은 주니치로서는 이종범이 천군만마였다. 그의 화려한 야구인생은 그렇게 일본에서 정점을 찍는 듯했다.

그러나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부상의 악재는 피하지 못했다. 6월 23일 한신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가와지리 데쓰로가 던진 120㎞의 커브에 팔꿈치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팔꿈치 골절상이다. 이 사고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이종범의 신바람야구는 무참히 무너졌다.

이종범이 다시 타석에 들어서기까지는 꼬박 3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종범은 그해 67경기에서 69안타, 타율 0.230, 18도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긴 채 시즌을 마쳤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성적이었다.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 그에게 더 이상 ‘바람의 아들’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야구에 대한 열정과 승리에 대한 열망은 신바람야구의 원동력이 됐다. 1999년 그의 신바람야구는 다시 시작됐다. 부상 후유증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전성기의 기량은 잃었지만 야구팬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일본엔 짧게나마 ‘리(이종범의 애칭)’ 신드롬이 일었다. 그래서인지 “‘리’가 누구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때마다 “그는 ‘바람의 아들’이다”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허무맹랑한 답변이지만 일본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뜻을 음미했다. 범접할 수 없는 실력자였기에 누구도 물음표를 달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가. 1993년 해태에 입단, 1994년 196안타·19홈런·84도루를 기록했고, 일본 진출 전인 1997년에는 타율 0.324(5위), 30홈런(2위), 64도루(1위)로 30-60클럽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바람처럼 그라운드를 떠났다.

1998년 비운의 사건으로 날개를 잃었지만 한국인의 혼을 담아 열도를 누볐다. 이종범의 신바람야구가 있었기에 야구팬들은 행복했다. 그가 남긴 신화적 기록이 있기에 오늘의 한국 프로야구는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신저가 행진… 기다릴 때인가, 뛰어들 때인가?

삼성SDI·신세계 등 38개 종목 줄줄이 '52주 신저가'

"저가매수 기회" 국내주식형 펀드 14거래일간 1조 유입

힘을 잃은 코스피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19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마저 꺾이면서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대표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그러자 국내주식형 펀드에는 최근 2주일간 순유입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와 삼성SDI, LS, 신세계, 남양유업 등 38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현대차는 3분기 실적 우려감에 17만원이 무너지며 전거래일보다 4% 빠진 16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SDI도 이날 장중 10만2000원까지 하락하며 신저가를 경신했다. 삼성전기 주가도 장중 한때 4만원까지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주식형 펀드에는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총 1조1430억원을 기록하며 14거래일 연속 순유입 행진이 이어졌다. 최근 한 달간 유입된 자금규모는 1조3544억원, 지난 9월 초 기준으로는 1조7617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달러 여파로 외국인 매도세 이어지고 3분기 기업 실적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스피시장의 월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4월 3조5734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 15일 약 4조3000억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시장 활력이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하지만 2011년 하루 거래대금 6조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아람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달러화 강세 완화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불확실성 이슈가 산재한 만큼 재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16일 신저가 종목 (단위: 원, %)

종목명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OCI	89500	6100	−6.38
신성솔라에너지	919	50	−5.16
삼성전기우	23100	1100	−4.55
삼성SDI	103500	4500	−4.17
현대차	168000	7000	−4.00
삼화콘덴서	4100	165	−3.87
SKC	27300	1100	−3.87
삼성전기	40250	1600	−3.82
SG충남방적	1400	55	−3.78
현대모비스	235000	9000	−3.69

'저금리' 투자 암흑기 아시아롱숏펀드 대세

연평균 수익률 8~9% 수준

삼성자산운용이 저금리 기조 속에서 국내보다 더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아시아롱숏펀드를 투자 대안으로 제시했다.

16일 성창환 삼성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내 주식시장은 유사한 롱쇼트전략을 사용하는 펀드가 많아 수익 달성 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시아 시장은 아직 유망하다"고 밝혔다.

롱쇼트펀드란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사고(Long),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미리 빌려서 팔아(Short) 차익을 남기는 펀드다.

국내 주식시장에 유사한 롱쇼트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금이 증가하면서 수익 달성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내 롱쇼트펀드 투자대상은 1700여개 상장종목을 살펴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을 넘는 수준이며, 2개 이상의 증권사가 분석하는 종목은 300여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시아 롱쇼트펀드의 투자대상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이아,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를 아우르며 상장종목 8000여개 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만 달러 이상이다. 2개 이상의 증권사가 분석하는 종목은 1400여개에 달한다.

국내 롱쇼트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1% 내외이지만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아시아 롱쇼트펀드의 수익률은 8~9% 수준이다.

황윤주 기자 hyj@

아모레퍼시픽, 요우커 효과에 '장밋빛 전망'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증권사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7일 증권사들은 아모레퍼시픽의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날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를 2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손효주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면세점의 폭발적 성장으로 향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으나 성장이 면세점 채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확장으로 브랜드 힘을 키워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성장과 홈쇼핑, 인터넷 등 디지털채널로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1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상반기 면세점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급증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면세점 화장품 판매액 성장률이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를 웃돌기 시작해 2분기 그 정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 260만원→300만원
우리투자 210만원→240만원
증권사들 목표주가 상향 조정
'이니스프리' 아모레G도 관심

증권사들은 아모레퍼시픽 뿐만 아니라 아모레G에도 관심을 집중하며 목표가 조정에 나섰다.

우리투자증권은 아모레G의 목표주가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렸다. 브랜드숍 '이니스프리'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에서다.

한 연구원은 "아모레그룹이 15일 '애널리스트 데이'(Analyst Day) 행사를 통해 2020년까지 이니스프리 브랜드의 연평균 18% 성장이라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는데 현시점에서 투자 매력이 매우 우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중국 지역에서의 공격적 직영점포 개설로 올해 말 약 100개 수준인 점포를 2020년 1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앞으로 중국에서 높은 성장을 구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미현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이니스프리 브랜드 매출이 연평균 18% 성장해 2020년 1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직영 매장 출점 등으로 중국 매출 또한 매년 40%씩 성장해 2020년 68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국투자증권 '스탠바이 TRUE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21일까지 신상품 '스탠바이 TRUE ELS' 5120회를 총 12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유로스탁스50 기초자산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ELB) 1종, 코스피200·HSCEI·S&P500·유로스톡스50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10종을 포함해 총 12종을 모집하며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중위험·중수익 상품 강화

美 '파이어니어 인베스트먼트'와 전략적 제휴

삼성증권은 글로벌자산운용사 파이어니어 인베스트먼트(Pioneer Investments)와 상품공급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파이어니어 인베스트먼트는 1928년 설립된 운용사로 운용자산 규모가 1926억 유로(약 260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 27개국에 진출해 2070명의 임직원과 350명의 투자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뮤추얼펀드인 '파이어니어 펀드'를 대표 펀드로 운용 중이며, 자산 중 채권운용 비중이 60%에 이르는 채권 전문 운용사다. 2014년 글로벌인베스터와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어워드 평가에서 채권부문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삼성증권은 멀티섹터 채권펀드인 '파이어니어 스트래티직 인컴펀드'를 단독 출시할 예정이다. 전통적 채권펀드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채권에 전략적인 분산 투자를 진행하는 펀드다. 상관관계가 낮은 미국투자증권 채권, 하이일드 채권, 글로벌 국채 등에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위험은 낮추고 장기적 우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채권금리 상승기를 거치면서도 10년 평균 연 7%의 수익률(14년 8월말 기준)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원화 헤지 클래스를 역외펀드로 개설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투자자들의 절세 활용성을 높였다.

정영완 삼성증권 고객전략실장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 대상과 운용방법을 다양화해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1년부터 각 지역별로 특화된 운용사들과 제휴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번 '파이어니어 스트래티직 인컴펀드'를 비롯해 '삼성 누버거 버먼 미국롱숏펀드' 등 글로벌 상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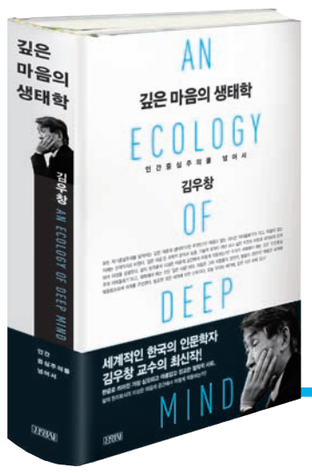
한편, 삼성증권과 파이어니어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증권 본사에서 정영완삼성증권 고객전략실장과 파이어니어 아태총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황윤주 기자 hyj@

김영사

"마음은 그대 사람들의 것인가, 별들의 것인가?" 모든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깊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석학 김우창의 강철 같은 사유가 펼쳐내는 깊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탐구!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 지식, 눈부신 통찰을 통해 동서양 최초로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치다. 한글로 씌어진 가장 심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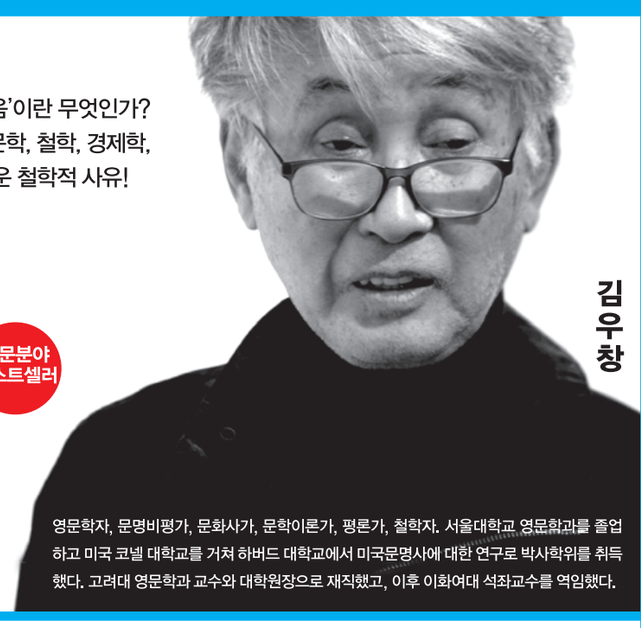


김우창
양장 | 516쪽 | 27,000원

깊은 마음의 생태학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 AN ECOLOGY OF DEEP MIND



김우창

영문학자, 문명비평가, 문화사가, 문학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문명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적인 한국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의 최신작!

인간의 이성과 마음, 자연과 세계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김우창 교수의 사유 세계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가 서로 비추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장이며, 우리의 궁색한 생각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어준 통찰의 등대이다.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선생의 주옥같은 글들은 한글로 쓰여지는 글로서 이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도 최고의 수준이다.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 이 땅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독자들이라면, 김우창이라는 산을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문광훈**(충북대 독문과 교수)

TEL :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사이버결제, 라인·카카오 '전자지갑' 책임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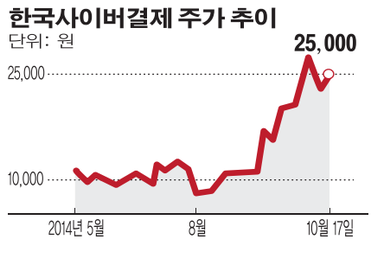
두 경쟁사 모바일 결제업체 선정에 물밑 접촉중
관련주 '두근'… 시장, 보고서·루머 쏟아내며 '술렁'

한국사이버결제가 카카오페이와 라인페이 양사의 간편 결제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결제업체로 선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17일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라인페이에 간편 결제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수주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꾸준히 영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나 라인 두 경쟁사에 공동 수주 진행과 관련해 "카카오페이에 선정된다 해도 이미 LG CNS가 있어 단독으로 간편 결제 업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페이와 간편 결제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7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에 이어 5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라인까지 라인페이를 출시하자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등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도 잇따라 관련 보고서를 내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한국사이버결제가 카카오페이에 LG CNS 엠페이와 함께 간편 결제 업체로 선정됐다는 루머가 퍼졌다.

여기에 한국사이버결제가 라인페이 까지 간편 결제 업체로 선정돼 곧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의 성공 조건은 대규모 가입자를 모집할 기반, 온·오프라인의 통합 서비스와 보안"이라며 "현재 카카오페이의 LG CNS 엠페이가 PG업체로는 신생에 가깝다보니 가맹점 수가 기존 PG사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와 라인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대규모 가입자를 모집할 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결제 시장의 성패는 가맹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니 추가적인 결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라인페이 결제 업체 선정과 관련, 한국사이버결제의 최대주주가 NHN엔터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나 라인페이의 업체 선정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이버결제는 지난 14일 Zara 제품의 온라인 한국 판매 법인인 ITX Korea와 계약을 맺고 ZARA의 온라인 스토어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골프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스크린골프사업 인적분할
유통사업 물적분할해 신설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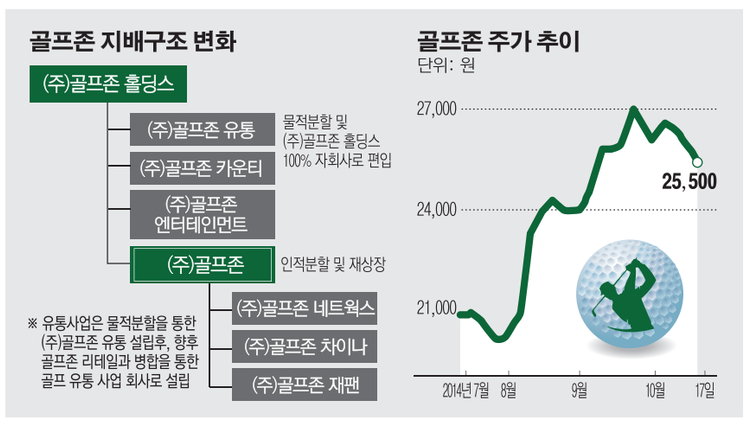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사업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골프용품 유통사업을 물적분할해 법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분할 기일은 내년 3월1일이다.

골프존은 현재 스크린골프사업, 유지보수사업, 골프용품 유통사업, 골프장 운영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골프존은 회사 분할해 골프존홀딩스를 존속회사로 만든 뒤 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골프존홀딩스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한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사업부문은 스크린골프사업부문을 떼어내 골프존으로 인적분할 회사를 설립한다. 분할비율은 인적분할신설회사(골프존)와 분할존속회사(골프존홀딩스)가 0.1703005대 0.8296995다.

분할 후 골프존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골프존홀딩스의 발행주식은 변경 상장된다.



골프존은 골프용품 유통사업을 물적분할해 골프존유통을 신설한다. 골프존유통은 골프존홀딩스의 자회사로 비상장할 예정이다.

골프존의 이번 결정은 기업 및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회사 측은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다. 현재 골프존의 최대주주인 김원일 전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은 38.18%로 골프존홀딩스에 대한 지분율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또한 인적분할 신설회사인 골프존의 최대주주 역시 김 전 대표(지분율 38.18%)가 되며 물적분할 신설회사 골프존유통은 주식의 100%를 골프존홀딩스가 소유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업부문 분리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향후 골프존홀딩스에 골프존 보유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받으면 경영권 을 강화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테마주라고?… 실적으로 털겠다는 엔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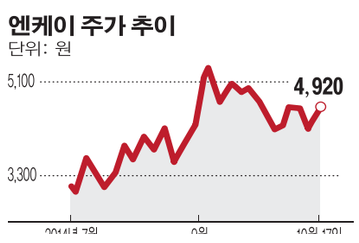
김경훈 대표 기자간담회
'김무성 테마주' 선 그어

"최근 주가 상승이 정치 테마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을 통해 더욱 주목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무성 테마주'로 잘 알려진 엔케이의 김경훈 대표가 정치 테마주보다 개선된 실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경훈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자회사 부진으로 적자를 냈지만, 올해 상반기에 흑자로 전환했다"며 "올해 하반기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엔케이는 선박용 소화설비와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됐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하지만 엔케이는 주식시장에서 김무성 테마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엔케이 창업주인 박윤소 회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돈 관계라는 사실 때문. 특히 김무성 대표가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박 회장과 김 대표가 사돈 관계이고 김무성 대표가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기업 경영하는 사람은 일만 할 뿐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테마주로 연결되는 시장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엔케이가 정치테마주로 분류돼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주가는 정치테마주 요인보다 실적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엔케이의 주가는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이 확인된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7월 초 3205원이었던 주가는 전날 4320원으로 35% 가까이 올랐다. 이날도 7% 이상 상승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선업황이 어렵지만 다양한 해외 매출처를 확보한 덕분에 매출에 큰 타격이 없고, 최근 2년 연결 기준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관계사들의 실적도 올해 좋아지고 있어 대규모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리노스컨소시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ISP 계약 체결

리노스는 LG CNS-리노스 컨소시엄이 서울지방조달청과 약 13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체 재난망 구축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요기관이 구상하는 정보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적용하는 단계다. 리노스는 내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재난망 구축 현황조사, 기지국 및 사업물량 산출, 운영체계 보완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리노스 노학영 대표이사는 "당사가 경찰·소방 및 공공기관에 구축·운용 중인 디지털 TRS 운영기술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며, 향후 전체 재난망 구축 사업에 있어 LG CNS-리노스 컨소시엄이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ISP 수립에 이어 본 사업에 참여,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동부증권, ELB·ELS 4종 판매



동부증권은 17일까지 최고 연 3.42%의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최고 연 7.38%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3종을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원금보장 하이파이브 형태 ELB 1종과 원금비보장 스텝다운 형태 ELS 3종으로 구성됐다. '동부 세이프 제99회 파생결합사채(ELB)'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4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 가격의 102%(4,8,12개월)이상이면 연 3.420%의 수익이 지급된다.



한국전자인증 주가 추이
단위: 원
4,300
3,000
4,760 (7월 29일)
3,000 (10월 14일)
3,275
2014년 5월
8월
10월 17일

한국전자인증 FIDO 기반 지문보안인증서 개발 완료

한국전자인증은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의 생체인증기술을 이용한 지문보안인증서를 개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전자인증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생체인증으로 대체해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증만으로 사용자 인증, 암호화, 전자서명, 부인방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또한 인증서 유출방지를 위해 지문정보로 암호화된 인증서를 샌드박스(Sandbox) 기술을 이용해 저장하고 타인이 알 수 없도록 인증서숨기기 기능을 제공하여 인증서 유출방지와 도용이 되지 못하도록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전자인증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키로깅의 보안 위협, 입력의 번거로움, 악성SMS문자를 통한 인증서 탈취 등의 문제점을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며 "생체정보를 공인인증서와 결합함으로써 이용이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발은 최근 FIDO 총회를 국내에 유치하고 FIDO기반의 생체인증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오페이(BioPay : 크루셜텍-다날합작사)와의 협력사업으로 지문인증을 위한 각종 정보는 스마트폰의 시스템 영역에 암호화해 저장되도록 설계됐다.

지문보안인증서는 각 앱별로 할당된 안전한 저장소인 샌드박스에 지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며, 인증서숨기기 및 해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이 분실되더라도 인증서를 도용할 수 없도록 보안을 크게 강화했다.

한국전자인증과 바이오페이는 지문인식폰의 보급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은행, 증권 등 금융권과 간편결제서비스 등 보안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자인증은 Non-ActiveX(Plugin-Free)기술인 Html5 기반 공인인증서비스의 상용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 최초로 HTML5기반의 공인인증서비스와 지문보안인증서를 개발하여 인증기술을 선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인증수단과 파트너쉽을 통해 가장 지능적인 글로벌 기업(Intelligent Global Company)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유현 기자 yhssoo@

공시돋보기

한스바이오, 잇단 대규모 계약 해지

'괜찮아, 부실계약이야'

한스바이오메드가 향후 사업 진행상 문제가 될 만한 계약들을 정리하고 나섰다.

16일 한스바이오메드는 공시를 통해 네덜란드'Rofil Medical Implants'와 맺었던 131억 규모의 실리콘젤 인공유방모형물 해외 OEM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흥과 체결했던 이식재 공급에 대한 본계약 역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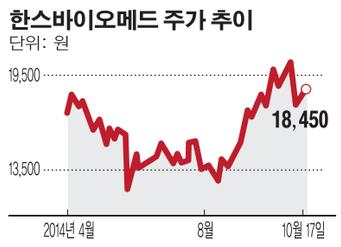
대규모 계약 해지 사실을 놓고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계약해지가 실제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로필사와의 계약 해지 건의 경우 지난 2009년 맺었던 계약으로 이미 4년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상태다.

회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은 로필사가 지급하지 않았던 초도물량 대금의 50%인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납품물량의 절반은 물건으로 돌려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로필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 손실분의 경우 그동안 충당금을 통해 반영해왔다"며 "이번 계약해지에 따른 현금흐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시 담당자가 바뀐 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한 차례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공시가 나가게 됐다"며 "공시가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신흥과 합성골 이식공급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업체와 OOEM 공급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스바이오메드 측은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 신흥과 OEM공급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회사의 실익을 판단해 본 결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업체를 밝힐 수 없지만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업체와의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 철회로 인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영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한스바이오메드는 1.60% 하락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잇따른 계약 철회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번 계약철회건이 향후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 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블루스카이,
깨끗하고 새로운
공기를 채우다

실내 공간을 초미세먼지 없이 깨끗하게
공기 중 떠도는 세균, 바이러스 걱정없이 건강하게
먼지, 세균이 신경쓰이는 어린이집에서
레스토랑, 병원까지!
블루스카이가 당신과 고객 곁을
언제나 깨끗한 공기로 채웁니다


AX1AH9000WKD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깨끗한 공기를 더 넓게! 더 빠르게!

삼성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

- 국내 최대 청정 면적 — **3개의 팬과 9개의 필터를 통한 국내 최대 청정 면적 정화(152.8㎡)** (2014년 6월 20일 에너지관리공단 등록 기준)
- 국내 최고 청정 속도 — **4way 서라운드 바람으로 더욱 빠르게 실내 공기 정화** (에너지관리공단 등재 표준 사용 면적 152.8㎡ 기준)
- 국내 유일 100% 탈취효율 — **헤파프로필터 시스템™의 3단계 정화로 탈취 효율 100%** (탈취효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성적 기준) (탈취효율 실험대상 성분 :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 시험면적 4㎥ (1.4m * 1.4m * 2m) 기준)
- 초미세먼지 99.9% 제거 — **헤파프로필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는 기본, 0.02㎛의 초미세먼지까지 99.9% 제거** (미세먼지 제거율은 흡입된 공기에 한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시험성적 기준)

| 가정에서 병원까지 언제나 맑고 깨끗한 공기 |



삼성전자 S' 골드러시 **블루스카이 런칭 기념 이벤트** (10/10~10/31)

행사1. 블루스카이 구매시 **인버터제습기**(11L, AY10H7000WQD) 또는 **소형 공기청정기**(AX40H5000UWD) 증정(선착순 2,000명)

행사2. 블루스카이 구매시 삼성카드 리턴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금액의 4% 포인트 적립

※ 본 행사는 행사매장 내 해당모델 구매시에 한하며, 혜택 부여방법은 행사 매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프라자 행사점 限)

삼성전자 SAMSUNG